

2020 국별 진출전략

프랑스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유럽 주변국 정치·경제적 불안	4
나. 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가능성	5
다. 스타트업 활성화	6
라. 5G 산업과 디지털세 부과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가. 정치 환경	9
나. 경제 환경	10
다. 산업 환경	12
라. 정책 환경	13
2. 시장 분석	15
가. 시장 특성	15
나. 교역	16
다. 투자	21
라. 프로젝트	24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6
가. 교역	26
나. 투자	28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9
III. 진출전략	31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3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2
3. 한-프랑스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40
4. 진출 시 유의사항	45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6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9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52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3
부 록	
對프랑스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54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프랑스 2020년 경제성장률 1.4%로 2019년 성장률 유지 전망

- 유럽 경기침체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대외경제 리스크 병존
 - － 프랑스의 제1 교역 국가인 독일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입 환경 및 환율 불안 리스크 증폭
 - － 브렉시트 협상 추이에 따른 리스크 존재
- 가계 구매력 상승, 실업률 감소 추세로 국내 경기 긍정적으로 전망
 - － (구매력) 2018년 말 국내 노란조끼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구매력 상승 정책의 효과가 2019년 말부터 가계소비 증가로 나타날 전망
 - － (실업률) 정부의 친기업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고용상황 개선, 실업률 지속적으로 하향세 기록 중, 2017년 9.4%에서 2020년 8.4%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63.4	64.0	64.3	64.5	64.6	64.7	65.0	65.3
명목 GDP	십억 달러	2,683	2,856	2,439	2,466	2,587	2,775	2,761	2,876
1인당 명목GDP	달러	42,333	44,616	37,937	38,253	40,045	42,877	42,472	44,030
실질성장률	%	0.2	1.0	1.1	1.2	2.2	1.5	1.4	1.4
실업률	%	9.8	10.3	10.4	10.1	9.4	9.1	8.8	8.4
소비자물가상승률	%	2.2	0.6	0.1	0.3	1.2	2.1	1.3	1.5
재정수지(GDP대비)	%	-5	-3.9	-3.6	-3.4	-2.7	-2.6	-3.3	-2.4
총수출	백만 달러	561.1	580.4	521.8	521.1	559.3	611.1	607.9	641.2
(對韓 수출)	"	4.7	6.6	5.3	4.3	5.7	5.1	N/A	N/A
총수입	"	630.7	636.9	553.8	556.8	609.7	669.7	673.4	706.0
(對韓 수입)	"	4.3	2.8	2.6	2.7	2.8	3.5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05.9	-56.5	-32.1	-35.7	-50.4	-58.7	-65.5	-64.8
경상수지	"	-32.7	-37.4	-9.1	-12.2	-16.5	-19.0	-24.3	-23.8
환율(연평균)	현지국/US\$	0.78	0.82	0.92	0.95	0.83	0.85	N/A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354	498	532	647	412	1,024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6	26	453	230	298	372	N/A	N/A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IMF, Economic Intelligent Unit, Global Trade Atlas, OECD(2019년 9월 기준)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유럽 주변국가의 정치, 경제적 불안 요소 산재
- 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재개
-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
- 5G 산업 가속화, IT 기업 디지털세 부과

가. 유럽 주변국 정치·경제적 불안

포스트 브렉시트

- EU-영국, 2019년 11월부터 브렉시트 시행 결정
 - －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시점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
 - * 유럽연합과 영국은 2018년 11월 브렉시트 공식 합의안 도출
 - － 2019년 7월, 새로운 총리로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이 취임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확대
-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 통상적 혼란, 경제적 위기
 - － 영국이 아무런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유럽연합 내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 위험
 - * 유럽연합 GDP의 0.8%, 프랑스 0.3% 감소(Cepii), 유럽연합 내 일자리 179,000명, 프랑스 내 일자리 50,000개 위협
 - － 영국산 수입제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 예상
 - * 영국 내 제조 공장이 있는 상품들(자동차, 농산물, 위스키 등) 가격 폭등
- 소프트 브렉시트 : 프랑스 경제에 기회요인
 - － 21개월의 전환기간에 돌입하며 유럽연합과 영국, 통상 협정 등 시작
 - － 파리를 제2의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마크롱 정부의 포스트 브렉시트 프로젝트 실현 가능
 - * 마크롱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 부유세 폐지, 외국계 기업 직원 소득세 감면, 국제학교 추가 설립, 영어 가능한 금융 분쟁 특별법원 설치 등

독일의 경기침체 여파

- 독일은 유럽 경제의 동력이자 프랑스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므로 양국 간 교류가 많은 산업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 프랑스 관세청은 2020년 프랑스의 수출 성장률을 2019년 예상 수치인 4.8%에서 2% 감소한 2.8%로 전망

- 특히, 독일의 자동차 시장 침체로 자동차 관련 부품 등 프랑스 생산량도 감소 예상
 - 디젤 게이트 타격, 유럽의 새로운 배출가스 시험절차(WLTP) 도입,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완성차 시장의 수요 부진 등으로 자동차 산업 고전 중
 - 또한, 프랑스 주요 완성차 브랜드 공장들이 2020년 대거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생산량은 더욱 감소될 전망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및 진입 리스크

-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 기업이 변함없이 무관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상황이므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프랑스 정부의 정책 활용 검토 필요
- 유럽의 자동차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배터리 및 자동차부품에서 높은 시장인지도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

나. ECB의 금리인하, 양적완화 가능성

ECB(유럽중앙은행), 유로존의 경기침체로 금리인하, 양적완화 정책 재개

- ECB 드라기(Draghi) 총재, 2019년 7월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현행(0%) 유지 혹은 인하 방침 시사
 - 또한, 신규자산 매입 등을 통해 물가를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양적완화정책 재개 가능성 시사
 - *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 경제의 장기부진으로 2015년부터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2016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자 2018년 말 완전히 중단
- 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 성장률(1.5% → 1.4%)과 물가상승률(1.4% → 1.3%)을 하향조정하면서 이어진 방침
 - 유럽연합은 미중 무역전쟁 지속화, 브렉시트 불안, 독일 경제침체 등으로 2020년 성장률 둔화 예상
 - 드라기 총재에 이어 2019년 11월 취임하는 라가르드(Lagarde) 신임 총재가 완화 기조를 이어갈 예정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ECB의 금리인하에 따라 유로화 환율이 하락할 경우 프랑스에 수출증대 및 기업투자 효과 전망
- 프랑스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라 한국과의 교역에 영향 가능
 - 우리 기업의 경우 대(對)유로존 수출 경쟁력 대책 마련 필요

다. 스타트업 활성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유치 정책 활용 필요

- 2020년 미·중 무역분쟁과 유럽 제조업 기반 국가들의 침체 속에서 프랑스 경기는 현상유지일 것으로 전망
 - 가계 구매력 상승, 지속적인 실업률 하락 효과
 - 해외투자 유치 등 브렉시트의 긍정적 여파 기대
-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스타트업 육성정책
 - 2013년부터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프렌치 테크 French Tech’ 프로그램을 시행,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프랑스 스타트업을 브랜드화 시켜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중
 - * 약 2억 유로 규모의 ‘프렌치 테크 액셀러레이터 펀드’로 스타트업 성장 지원
 - * IT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해 ‘프렌치 테크 비자’를 만들어 2017년부터 발급 중
 - 2016년 프랑스 파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 F’ 설립
 - 2019년 9월, 투자 금융기관을 모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펀드 50억 유로 조성
- 계속되는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
 - 사회보장세 감세, 부유세 폐지, 소득세 인하, 노동유연성 강화
 - 법인세 단계적 인하로 2022년까지 25%로 감소 목표(현재 33.3%)
 - 유럽의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데이터 분석기관인 EY에 따르면, 프랑스의 벤처투자 규모는 2014년 약 9억 유로에서 2015년 18억 유로, 2016년 22억 유로, 2017년 25.6억 유로, 2018년 31.6억 유로로 지속 증가 중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우리 기업들도 프랑스 정부의 감세(R&D 투자비 및 법인세, 사회보장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지 진출 방법 고민 필요
- 스타트업, 벤처 산업의 유망 분야 :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가전, 자동차부품 등
 - 프랑스의 디지털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해당되므로, 지나치게 앞서가는 기술 및 제품보다 소비자들에게 너무 낯설지 않은 익숙한 제품으로 주력 권장

라. 5G 산업과 디지털세 부과

프랑스 정부, 5G 로드맵에 따라 주파수 할당 및 서비스 구축

- 2017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5G 로드맵 발표
 - 5G 상용화를 둘러싼 전 세계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맵 확정

- 2020년까지 회원국 주요 도시 최소 한 곳에서 상용 서비스 시행, 2025년까지 EU 전 지역 5G 서비스 공급
- 2018년 7월,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조정기관(ARCEP), 유럽연합 로드맵에 기반한 5G 로드맵 발표
 - 2019년 하반기 주파수 경매 시작, 2020년 말까지 주요 대도시에 상용화 목표

시기	주요 내용
2018년	○ 전국 주요 지역에서 5G 테스트 및 파일럿 프로젝트 발주 - 사용 시 신분확인 및 전시장에서의 정보 수집
2019년	○ 점진적인 광대역 5G 주파수 자유화 ○ 최초의 호환성 단말기 상업화
2020년	○ 주파수 할당 및 허가에 따르는 의무사항 정의 ○ 최소 1개 이상의 도시에 상업적 5G 구축
2025년	○ 주요 도로 및 산업지역을 커버하는 5G 인프라 구축

자료 : 프랑스 정부 5G 로드맵 발표 자료(2018년 7월 발표)

- 2019년 7월, 5G 구축을 위한 통신안전법 국회통과
 - 일명 ‘화웨이 법’이라 불리며, 이동통신사들은 5G 장비 제조업체를 선정 시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 * 법안에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유럽 외 국가 출신 기업에 대한 통제 불가능 리스크 예방 목적
 - 해당 장비 리스트는 프랑스 전자통신조정기관(ARCEP)에 의해 추후 정해질 예정

프랑스 정부, 글로벌 IT 그룹에 디지털세 부과 결정으로 미국과 갈등 고조

- 2019년 1월 22일 프랑스는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
 - 연 수익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총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 5,000만 유로, 2021년 5억 5,000만 유로, 2022년 6억 5,000만 유로 규모의 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법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판하며 보복관세 예고
 - 2020년에는 G7 및 OECD 차원에서도 디지털세 부과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 될 전망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 프랑스 내 점진적인 광대역 5G 주파수 자유화와 함께 전개될 통신장비 시장 개척 필요
- 경제국무장관 아녜스 파니에-루나셰(Agnes Pannier-Runacher)는 “모든 장비 제조사에는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
- 디지털세가 자리 잡고 발전하면 지금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 큰 상황
 -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소 IT 기업, 유튜버들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필요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블랙시트, 지방선거,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정치·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기둔화 리스크
- (경제) 2020년 경제성장 정체 전망(2019~2020년까지 1.4% 성장에 머물 전망)
- (산업) 친환경자동차 및 배터리, 디지털 기술 등 미래 산업 육성정책 추진 중
- (정책) 자동차 배기가스, 플라스틱제품 등 환경유해물질 규제 강화 지속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포퓰리즘 강세, 노란조끼 시위 등 사회적 불안요소 산재

- 20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결과 극우정당 득세
 - 2018년 12월부터 계속된 반정부 노란조끼 시위와 반EU 및 반난민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 포퓰리즘당의 강세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 급감
 - 반면 집권당인 '전진하는 공화국(REM)'당이 22.4% 득표로 2위를 선점하며 불안한 상황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
 - 1위는 극우성격의 국민연합(RN, 전 국민전선)으로 23.3%를 득표,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유럽의회 선거의 제1 득표당이 되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회의적 시각 확인
 - 3위는 13.5%를 득표한 녹색당으로 2014년에서 독보적으로 상승한(+ 4.5%) 결과
 - 기존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당(PS)과 공화당(R)은 각각 6.2%, 8.5%를 득표로 평균 10% 감소

국민연금개편안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불안요인 가중

- 연금수령시기 변화와 연금시스템 단일화 등이 포함된 마크롱 정부의 대대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대 여론 거센 상황
 - 2019년 하반기 노동조합연합의 대대적인 무기한 총파업 및 거리시위 예정
 - 사회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은 만큼, 2018년 겨울의 노란조끼 시위처럼 확대될 가능성 다분

2020년 지방선거

- 2020년 3월 22일 예정된 지방선거
 -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이긴 하지만, 노란조끼 시위의 원인이 됐던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와 소통하지 않는 권위주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 참패 가능
 - 유럽 전반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우세한 상황으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도 극우당 득세 가능
 - * 브렉시트 및 자국 우선주의 무역 분쟁 등의 침체 요소와 겹쳐 경제적 혼란 가중 요인

나. 경제 환경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 둔화)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유럽 내 경제침체 및 정치적 혼란 등의 영향으로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20년까지 정체될 전망
 - 구매력 상승, 실업률 감소, 설비투자 호조 등이 불경기 속 성장 동력

프랑스 정부, 주요 연구소 및 기관의 프랑스 경기 전망 추이

(단위 : %)

기관명	발표 시기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IMF	2019.4	1.3	1.4	1.5
IHS 경제연구소	2019.8	1.2	1.0	1.1
BdF 프랑스 중앙은행	2019.6	1.3	1.4	1.4

자료 : IMF, 프랑스 정부예산법, IHS, BdF(2019년 9월 기준)

- (실업률) 2008년부터 정부 주도로 적극 시행된 1인 창업지원 정책 및 마크롱 정부가 적극 추진한 친 기업 정책,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의 효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향세 기록 중
 - 2019년 1분기 실업률 8.8%로 지난 10년 중 최저수치,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 2019년 1분기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 수 92,800개(자료 : IHS)

프랑스 정부, 주요 연구소 및 기관의 프랑스 실업률 전망 추이

(단위 : %)

기관명	발표 시기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BdF 프랑스 중앙은행	2019.6	8.6	8.3	8.1
IMF	2019.4	8.8	8.4	8.1

자료 : IMF, BdF(2019년 9월 기준)

교역 동향

- (수출전망 호립) 2019년 1~6월의 누계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수입은 3.9% 감소해 전체 교역량 2.8% 감소
 -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8년 활성화된 시장 경기의 영향으로 2019년 수출량은 소폭 상승할 전망
 - 독일의 경제침체와 이탈리아 정계 불안정,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요인으로 2020년 무역 성장률 둔화 예상
- (수입 시장 활성화 가능) 가계구매력 상승으로 2020년부터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무역 적자도 증가 예상

최근 5개년 대외무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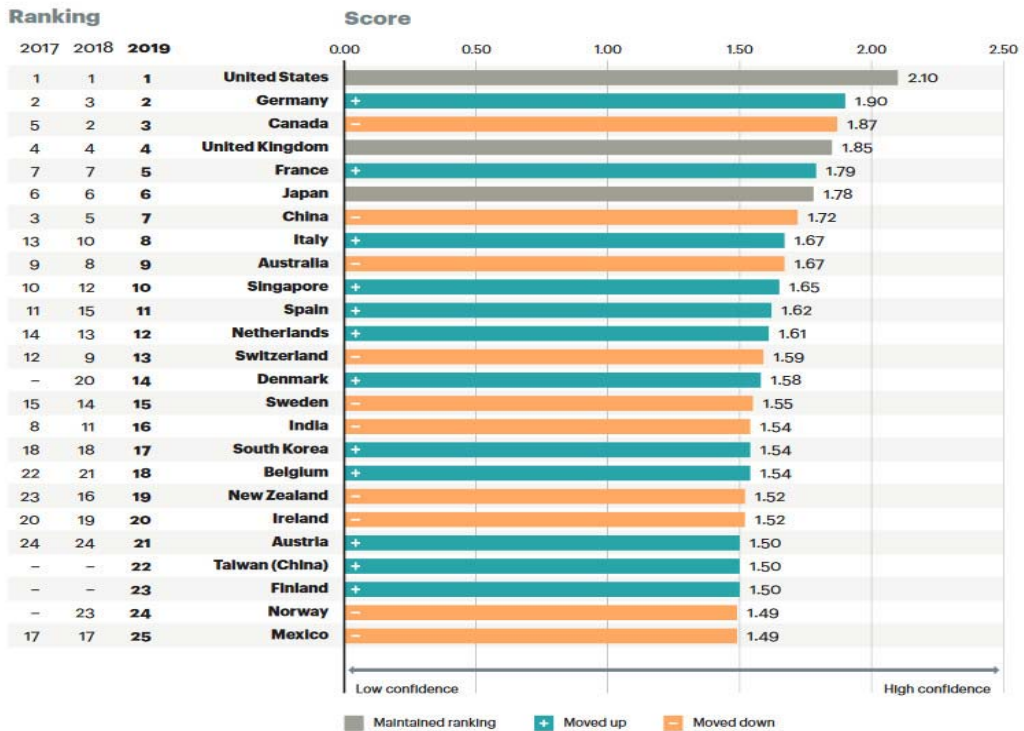
구분	2015년(증감률)	2016년(증감률)	2017년(증감률)	2018년(증감률)	2019년 6월(증감률)
수출	5,063(-12.8)	5,015(-1.0)	5,352(6.7)	5,819(8.7)	2,915(-1.5)
수입	5,734(-15.3)	5,720(-0.2)	6,242(9.1)	6,725(8.7)	3,329(-3.9)
교역	1조797(-14.3)	1조735(-0.6)	1조1,600(8.0)	1조2,550(8.7)	6,244(-2.8)
수지	-671(-30.6)	-705(5.1)	-890(26.3)	-907(8.6)	-413(-18.0)

자료 : GTA(Global Trade Atlas), 방산물자 포함, 수출 FOB, 수입 CIF 기준(2019년 9월 기준)

외국인 투자진출 동향

- (투자지역 매력도) A.T. Kearney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매력도가 높은 투자지역
 - 프랑스가 중국을 앞선 것은 처음이며, 2017년, 2018년 7위에서 두 단계 상승
 - 브렉시트로 영국 이외의 유럽에서 대안을 찾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가한 것과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

세계 투자지역 매력도



자료 : A.T. Kearney(2019년 5월 발표)

다. 산업 환경

주요 산업별 동향

- (자동차 산업) 유럽연합 차원의 배출가스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차량 생산 및 배터리 산업에 주력
 -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며 업계는 생산, AS 단계의 전환 프로그램 구축
 - * PSA, 태양열 자동차와 전기차 모두에 적합한 플랫폼 구축
 - 2020년 프랑스 자동차 생산량 줄어들 전망
 - * PSA, Renault사가 프랑스 내에서 생산하던 자동차 모델의 공장을 2020년부터 터키 및 슬로베니아, 모로코 등으로 이전 할 계획으로 프랑스 내 생산량이 축소될 전망
- (자동차부품 산업) 대표적으로 발레오(Valeo), 포레시아(Faurecia), P.O.와 같은 기업이 있으며, 미래차용 기술 부품 개발에 주력, R&D 투자 강화
 - 주 수입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인접 유럽국들
 -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5위 안에 들며 약 6%의 높은 점유율

- (기계 및 광물성 연료) 국가 대형 프로젝트와 지방 선거 등으로 설비 수요 및 도로공사에 필요한 원료 수요 증가
 -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파리와 외곽지역을 연결해 도심을 확장하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 등 국가 단위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 기계 설비 수요 증가
 - 2020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도로 및 도시공사 증가
 - 또한, 프랑스 국내 곳곳의 친환경, 디지털화 도시 정책으로 설비 수요 증가

라. 정책 환경

마크롱 정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개혁 강력 추진

-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제2의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투자유치 정책과 동일한 맥락
 - 사회보장세 감세, 부유세 폐지, 소득세 인하
 -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 강화
 - * 경영악화 시 해고조건 완화, 부당해고 시 기업의 책임 범위 제한, 노조 결정권 약화 등
 - 연금제도 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법인세 단계적 인하로 2022년 25%까지 감소 목표(현재 33.3%)

친환경자동차 산업 정책

- 프랑스 정부, 에너지 및 환경전환 주력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 5개년(2018~2022년) 전략 계획서 발표(2018년 5월)
 -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5배 증가 목표, 판매될 전기차의 10%만큼(약 100,000여 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프랑스 및 유럽 차원의 배터리 산업 시장 개발, 수소차 산업 경쟁력 강화
 - 자율 자동차 생태계 창조 및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공급
- 수소차 생산 지원 정책
 - 2023년까지 수소산업 내 무탄소 수소 10%, 2028년까지 20~40% 생산 목표(2018년 6월 환경부 발표)
 - 2019년부터 1억 유로 지원
 - * 전기분해기 구입, 지방단체 수소충전소 설립, 수소차 구입 등 지원
 - 2019년 포레스티아와 미쉐린 합작으로 Symbio사 설립, 2030년까지 20만 단위의 수소연료전지 부품인 스택팩 생산 목표, 2030년까지 세계 시장의 30% 점유 목표
 - 2023년까지 프랑스 전역에 수소차 충전소 100개 설치 목표, 2028년 최대 800개 목표
 - * 2019년 9월 현재 충전소 수 65개(30개 사용 중, 4개 설치 중, 31개 설치 예정)

○ 프랑스와 독일 배터리 생산 연대 구축

- 2019년 5월, IPCEI 프로젝트(유럽 공통 이익 주요 산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 프로젝트 발표
-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약 50~60억 유로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결정
- 2023년까지 독일과 프랑스에 생산 공장 각각 하나씩 설립 예정

 미래 산업 정책

- 프랑스 정부, 경제 부흥을 위해 국제 시장 수요, 성장 잠재력,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산업 등을 고려하여 9대 미래 유망산업 분야 육성정책 추진 중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9대 미래 산업 및 주요 목표

핵심산업	주요 내용 및 목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개발 및 폐기물 재활용 - 2020년까지 화학산업에서 식물성 대체연료 사용 2배 증가 - 2020년까지 식물성대체연료 및 녹색 화학 분야 일자리 5,000개, 폐기물 재활용 인력 20,000여 개 창출 - 폐기물 배출량 2020년까지 30%, 2025년까지 50% 감소
친환경 도시	스마트그리드, 수자원관리,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목재산업 - 2020년까지 지역 전문 인력 110,000개 창출
친환경 이동수단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고효율 연비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 2017년까지 배터리 및 수소연료기술 개발 산업단지 두 곳 구축 - 2021년까지 프랑스 제조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 -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인력 8,000~25,000개 창출
미래형 교통수단	TGV, 친환경 선박, 전기 항공기 및 차세대 항공기, 드론 등 - 선박 화석에너지 소비율 50% 감축 - 2020년 이후부터 연습용 전기구동 항공기 연간 80대 이상 판매 - 미래형 TG : 효율 25% 향상, 유지비 25% 감소
미래형 의료	의료 바이오 기술, 디지털 의료기술 개발 및 투자 - 의료 부분의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마련
데이터 경제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 2020년까지 미래형 컴퓨터 기술(Exascale)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 2020년까지 빅데이터로 일자리 137,000개 창출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로봇산업, 증강현실, 스마트 섬유 - 2020년까지 현금 사용 55%를 카드 결제로 대체, 스마트폰 결제 이용자 8백만 명으로 확장 - 20만 인구 이상의 도시 중 50%에 상호 운용이 가능한 비접촉 애플리케이션 구비
디지털 보안	- 2020년까지 크로 나노 전자 연구단지 생산력 두 배로 확대 - 연간 판매율 20% 상승을 목표로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 - 2020년까지 5G 망 개발
미래형 식품	기능형 식품, 미래형 식품포장, 식품 안전 및 식품 냉동보관기술 개발 - 향후 10년 동안 농축 단백질 생산분야 인력 1,500개 창출

자료 :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2015년 5월 발표)

2 시장 분석

- 유럽 2대 선진 시장, 세계 6대 경제대국
-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 시장
- EU 진출전략 가치가 큰 시장
- 친기업 정책 및 브렉시트 효과로 투자매력도 증가

가. 시장 특성

세계 6대 선진경제 시장

- (시장) 세계 6대, 유럽 2대 경제국으로 거대 내수시장
 - 2018년 기준, GDP 순위 세계 6위(2.8조 달러, 전년 대비 1.5% 성장)

2018년 세계 GDP 순위

(단위 : 달러)

국가(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프랑스
명목GDP	20.5조	13.4조	4.9조	4조	2.8조	2.8조

자료 : IMF(2019년 4월 기준)

- (기업) 환경·화학·기계 등 첨단 분야 고도기술의 본고장
 - 석유화학·자동차·우주항공 등 글로벌 포춘 31개(세계 4위, 유럽 1위, 2019년 기준)
 - * 독일 29개(5위), 영국 17개(6위) 한국 16개(7위), 스위스 14개(8위), 네덜란드 13개(9위)
 - ** 자료 : Fortune Global 500(2019년 9월 기준)

역내 교역비중이 높아 EU 진출전략 가치가 큰 시장

- EU 내 물류 또는 생산기지 구축 전략 가치가 커 중국 등 투자진출 활발
 - 브렉시트 영향으로 유럽 수출 거점지로 활용성이 커질 전망

EU 역내 교역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3월
EU 역내 교역비중	59.0	58.3	58.8	59.4	59.2	59.5

자료 : 프랑스 관세청(2019년 8월 기준)

나. 교역

최근 수출입 동향

- 2019년 상반기 교역규모 및 수출, 수입량 모두 하락세
 - 교역 6,244억 달러(2.8%↓), 수출 2,915억 달러(1.5%↓), 수입 3,329억 달러(3.9%↓), 수지 -413억 달러(18.0%↓)
 - 브렉시트 불안감과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기 위축이 EU 역내 교역비중이 높은 프랑스 수출입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수출) 자동차 및 선박 수출량 감소, 항공기 및 부품 수출 증가
 - (수입) 의약품 수입 대폭 감소, 에너지 제품 수입 증가
- * 자료 : 프랑스 관세청(2019년 6월 기준)

최근 5개년 대외무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5년(증감률)	2016년(증감률)	2017년(증감률)	2018년(증감률)	2019년 6월(증감률)
수출	5,063(-12.8)	5,015(-1.0)	5,352(6.7)	5,819(8.7)	2,915(-1.5)
수입	5,734(-15.3)	5,720(-0.2)	6,242(9.1)	6,725(8.7)	3,329(-3.9)
교역	1조797(-14.3)	1조735(-0.6)	1조1,600(8.0)	1조2,550(8.7)	6,244(-2.8)
수지	-671(-30.6)	-705(5.1)	-890(26.3)	-907(8.6)	-413(-18.0)

자료 : GTA(방산물자 포함, 수출 FOB, 수입 CIF 기준, 2019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위치

- 한국의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 2019년 상반기 0.5%로 31위
 - 지난 약 3년간의 점유율 평균 약 0.5% 유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 및 순위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한국	0.48(30위)	0.46(31위)	0.53(30위)	0.51(31위)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 주요 품목별 증감률 변화
 - 2019년 들어 항공기 부품을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입량이 대체적으로 하락세

프랑스 대(對)한국 수입 10대 품목별 증감률

(단위 : %)

구분	10대 품목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품목명 (HS 코드)	자동차 및 부품(87)	전기 기기 (85)	기계 (84)	광물 연료 (27)	플라스틱 (39)	광학 의료기기 (90)	고무 제품 (40)	화장품 (33)	항공기 및 부품 (88)	유기 화학 (29)
2017년	73.1	3.6	15.9	-65.0	-11.5	6.0	56.2	28.1	3.2	2.2
2018년	29.7	26.2	25.9	157.7	25.2	4.2	53.6	46.1	5.2	6.5
2019년 6월	-12.4	1.1	-19.1	-3.5	-3.4	-6.3	-10.3	-2.0	21.1	-15.3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경쟁 동향(주요 경쟁국, 경쟁품목, 경쟁기업)

- 주요 경쟁국(5개국) :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 중국 :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10위 권 내에 있으며, 2018년 이후로 미국, 영국을 앞서는 점유율 유지
 - 일본 : 4년 연속 꾸준히 점유율 1.0%대를 유지, 중국과 더불어 20위권 내 유일한 아시아 국가

주요 경쟁국별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 현황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독일	19.4(1위)	18.5(1위)	18.3(1위)	18.3(1위)
벨기에	10.6(2위)	10.2(2위)	10.3(2위)	10.3(2위)
네덜란드	7.7(4위)	7.9(4위)	8.2(3위)	8.2(3위)
이탈리아	8.0(3위)	8.0(3위)	8.1(4위)	8.1(4위)
스페인	7.2(5위)	7.2(5위)	7.2(5위)	7.2(5위)
중국	5.1(7위)	5.1(8위)	5.2(6위)	5.2(6위)
일본	1.0(18위)	1.1(18위)	1.0(19위)	1.0(19위)
인도	0.7(22위)	0.8(20위)	0.9(20위)	0.9(20위)
베트남	0.6(27위)	0.7(25위)	0.7(27위)	0.7(27위)
한국	0.5(30위)	0.5(31위)	0.5(30위)	0.5(30위)
대만	0.4(36위)	0.4(37위)	0.3(39위)	0.3(39위)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 주요 경쟁품목
 - 한국과 일본의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7개가 중복,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은 두 나라 모두 1위 수출품
 - 5대 국가 모두의 경쟁품목 : 전자기기·음향기기·TV장비(85), 원자로·보일러·기계류(84)
 - 자동차 및 부품(87) : 일본, 대만, 중국, 인도와 경쟁

[주요 경쟁국 대(對)프랑스 10대 수출품목 현황]

(HS코드)

순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대만
1	자동차 및 부품(87)	전기기기, 음향기기, TV장비(85)	자동차 및 부품(87)	광물성 연료, 광물유, 역청 (27)	전기기기, 음향기기, TV장비(85)	전기기기, 음향기기, TV장비(85)
2	전기기기, 음향기기, TV장비(85)	원자로, 보일러, 기계, 부품(84)	원자로, 보일러, 기계, 부품(84)	원자로, 보일러, 기계, 부품(84)	신발류 (64)	원자로, 보일러, 기계, 부품(84)
3	원자로, 보일러, 기계, 부품(84)	가구 (94)	전기기기, 음향기기, TV장비(85)	의류 (62)	원자로, 보일러, 기계, 부품(84)	자동차 및 부품(87)
4	플라스틱, 그 제품 (39)	의류 (62)	광학, 사진, 의료기기 (90)	편직의류 (61)	의류 (62)	철강제품 (73)
5	광학, 사진, 의료기기 (90)	편직의류 (61)	화학 제품 (38)	전기기기, 음향기기, TV장비(85)	편직의류 (61)	플라스틱, 그 제품(39)
6	항공기 및 부품 (88)	플라스틱, 그 제품 (39)	카메라 및 장비(37)	유기화학 (29)	가구 (94)	공구류 (82)
7	고무 및 그 제품(40)	자동차 및 부품(87)	유기화학 (29)	광학, 사진, 의료기기(90)	가족제품, 핸드백(42)	광학, 사진, 의료기기(90)
8	화학 제품 (38)	완구, 게임, 운동용구 (95)	고무 및 그 제품(40)	자동차 및 부품(87)	플라스틱, 그 제품 (39)	완구, 게임, 운동용구 (95)
9	철강 (72)	광학, 사진, 의료기기 (90)	플라스틱, 그 제품 (39)	의약품(30)	커피, 차, 향신료(09)	금속류 제품(83)
10	공구류 (82)	철강제품 (73)	의약품 (30)	신발류 (64)	어류 (03)	유기화학 (29)

주 : 겹치는 품목은 컬러 배경으로 표시

자료 : GTA(2019년 8월 기준)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A 사용제한 강화

-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을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 및 컵은 역내 유통 및 판매 금지
- 관련 기업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변경된 기준에 맞춰 제품 생산 필요
- 유럽의회, 관련 제조 기업들의 비스페놀S(BPS)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BP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 주장,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주장

-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전망

○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 2019년 5월 EU 집행위, 자외선 차단제, 염색약,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역내 반입 제한 또는 금지
- EU는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
- 염색제품의 원료인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은 현재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
- 집행위는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
- 충분한 유예기간 이후 시장반입은 2019년 11월 22일부로, 역내판매는 2020년 2월 22일부로 금지될 예정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클림바졸의 경우, 현재 0.5% 내에서 사용 허용
- 로션, 크림, 발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의 경우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 EU,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반입은 2019년 11월 27일부로, 역내 판매는 2020년 2월 27일부로 금지할 예정
-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 이후,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 예상
-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필요

(수입규제)

○ EU는 총 6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규제 중

- EU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므로 국내 수출업계의 지속적인 주의 필요

EU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번호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73류 일부	철강제품	세이프가드(규제 중)	2018.3.26
2	4811.90, 4809.90, 4816.90, 4823.90	경량감열지	반덤핑(규제 중)	2016.2.18
3	7225.11, 7226.11	전기강판	반덤핑(규제 중)	2014.8.14
4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우회덤핑)	반덤핑(규제 중)	2009.8.12
5	2804.69	실리콘 메탈(우회덤핑)	반덤핑(규제 중)	2006.4.20
6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규제 중)	2001.6.1

자료 : EU 집행위(2019년 8월 기준)

우리기업 수출 성공·실패사례 및 시사점

수출 성공사례 : 광케이블 업체 머큐리사(기술인증, 수출)

- 2017년 프랑스 오퍼레이터 X로부터 초도 약 40km 물량을 수주, 약 50,000 달러에 상당하는 초도 수출성고를 거양. 또한 2018년에 여러 프로젝트 오퍼문의에 대응해 2019년 약 400km 물량의 오더 수주, 약 60만 불의 수출 성과 거양
- KT 광섬유케이블 우수협력사로도 선정된 머큐리사의 광케이블은 Kotra 파리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가해 1년 6개월 만에 프랑스 오퍼레이터와 수출계약체결에 성공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8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9년 7월)
854470	광케이블	417.9%	243.8%

- **제품의 비교우위** : 프랑스 시장에 맞는 특수 사양 케이블 자체 제조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LSOH
성약 소요기간	18개월(2016.11. 지사화 가입 및 2018. 하반기 성약까지)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 리서치)
바이어 D/B	VERIF, Google, Europage
유망 전시회	Salon DataCentre World(파리), Salon Solutions Datacenter Management(파리), Salon Africacom(케이프타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바이어의 까다로운 요청에는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신뢰를 쌓았고, 프랑스 FTTH Conference 참가와 연계하여 주요 바이어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등 업체 입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정보를 발 빠르게 파악하여 전달하는데 집중했음. 프랑스에서만 사용하는 특수사양 제품을 파악해 이를 자체 제조 할 수 있어야 함

수출 성공사례 : 차량용 냉동기업체 써멀마스터사(기술인증, 수출)

- 프랑스 시장에 한국산 냉동기기 완제품 첫 진출이라는 성과
- 국내 현대·기아자동차 운송용 냉동기와 히팅 솔루션의 공급 순위 1위 업체인 써멀마스터사는 2017년 지사화 사업에 참가해 1년 만에 ATP(The Agreement on the Transport of Perishable Foods)를 취득하고 2018년 5월 TMCSaroul SA사에 첫 수출 24,888만 불 수출 성공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8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9년 7월)
841869	차량용 냉동기	-45.1%	-41.7%

- **제품의 비교우위** : 높은 품질의 순수 한국산 운송용 냉동기와 히팅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강점이 있으며 현지 3대 냉동기기(써머킹(Thermo King), 캐리어(Carrier), 자노티(Zanotti))업체들과의 경쟁을 목표로 현지 수요가 높은 모노블럭 제품을 중점적으로 마케팅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ATP(The Agreement on the Transport of Perishable Foods)
성약 소요기간	8개월(2017.8. 자사화 가입, 2018. 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 리서치)
바이어 D/B	VERIF, Google, Europage
유망 전시회	Salon de Traspotec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프랑스 시장진입을 위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및 제품 필수 인증절차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미래 전기차량용 냉동기기 시장을 타깃팅 한 친환경 모델 연구를 위한 과감한 투자, 장기간에 걸친 테스트 방식 등 프랑스 시장 특수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 수출 성사 가능. 생산자 인증까지 마치게 되면 양산을 통한 프랑스 및 유럽 역내 타국 시장까지 판로개척을 위해 추가 진성바이어 발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

수출 성공사례 :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 루트토닉사(기술인증, 수출)

- 2018년 프랑스 법인 설립
- 대한민국 1위 레이저 의료기기 제품으로 KOTRA 파리무역관의 도움으로 프랑스 진출에 성공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8년)	대한(對韓) 수입 증가율 (2019년 7월)
901890	의료용 레이저	20.4%	21.8%

- **제품의 비교우위** : 여러 레이저 기기의 원천기술 미국 특허 등록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1년(2017.1. 첫 진출 이후 현재까지 파리무역관 서비스 이용 중)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 리서치)
바이어 D/B	VERIF, Google, Europage
유망 전시회	AMWC(World Congress of the Aesthetic&Anti-aging Medicine), EURETINA(European Society of Retina Specialists)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3000만 불 수출탑을 받을 정도로 수출 선도 기업이긴 하나, 유럽 시장의 경우 아직 브랜드 파워가 미비. 부스를 설치하고 심포지엄을 진행할 시, 유럽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KOLDoctor들의 방문 혹은 참여가 있을지 여부 또한 미지수. 그러나 파리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유럽에서 진행되는 피부과 최대 국제 학회 중 하나인 AMWC 학회 부스 참석하였고, 의사 대상 심포지엄 및 KOL TESTIMONIAL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

다. 투자



최근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대(對)프랑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수 대폭 증가, 총 1,323건(2017년 1,298건)
 - 외국인의 제1 투자분야는 제조업(24%)으로 2018년 제조분야 투자 320건
 - * 미국(16%)과 독일(15%)이 제조업 분야의 주요 투자국

- 2018년은 지난 5년 중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았던 해
-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한 분야는 R&D(10%)와 개인서비스(9%) 분야
 - * R&D : 2017년에 비해 3% 증가, 지난 5년간 평균 9% 증가, 개인서비스 : 2017년 대비 294% 증가
- 프랑스에 투자하는 국가 중 61%는 유럽 국가, 그 외에는 미국(21%), 아시아(11%) 순
 - * 자료 : Business France(2019년 2월 발표)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한국의 대(對)프랑스 투자 2017년 대비 225% 상승
 - 2018년 투자액 4억 8,754만 달러, 15개 신규법인 설립
 - 정보통신업(11건, 2억 3,500만 달러), 제조업(21건, 1,600만 달러), 도·소매(65건, 2,900만 달러), 부동산업(4건, 1억 4,000만 달러) 등
- 2017년 9,700만 달러 투자, 24개 신규법인 설립
 - 신고건수 122건으로 대폭 상승
 - * 대부분 도매 및 소매업(86건)으로,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이후 활발해진 교류 및 한류열풍 영향
 - 정보통신업(3,900만 달러, 약 40%) 및 금융·보험업(2,600만 달러, 약 27%), 총 67% 차지

연도별 대(對)프랑스 투자 추이

(단위 : 건, 개, 백만 달러)

연 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승금횟수	투자금액
2013년	26	10	84	33	54
2014년	19	8	68	23	68
2015년	59	13	29	58	890
2016년	53	16	169	48	66
2017년	122	24	195	125	97
2018년	137	15	422	157	487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8월 기준)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EU 회원국 대(對)프랑스 투자 증가세
 - 영국 33% 증가(2017년 89건 → 2018년 118건), 네덜란드 96% 증가(2017년 53건 → 2018년 104건), 스위스 22% 증가(2017년 59건 → 2018년 72건) 등
- 한국,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경쟁국들의 프랑스 투자는 감소세
 - (대만) 2018년 7건으로 2017년 대비 4건 증가
 - (일본) 2018년 53건으로 2017년 대비 12건 감소
 - * 주요 진출분야 : 탄소복합소재 제조, 브레이크 제조, 화학, 의류 분야 등

- (중국) 2014년부터 매년 투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18년 57건으로 전년 대비 8건 감소

* 주요 진출분야 : 가전, 주얼리, 태양광-LED, 철도, 통신, 자동차, 금속, 텍스타일 등

** 자료 : Business France(2019년 9월 기준)

투자진출 진입장벽

- 2019년 1월부터 프랑스 정부는 첨단 IT 산업(인공지능, 데이터 저장,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 IT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프랑스 정부의 사전 허가 필요
- EU 집행위, 중국 등 외국 기업의 역내 민감 분야 M&A 규제 움직임
 -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EU 내 중국의 대(對)유럽 M&A 급증으로부터 역점 산업분야 유럽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강세
- 전략산업 분야 투자 규제
 - 2014년 5월부터 6개 분야(에너지, 운송, 물, 공공보건, 통신, 방산) 외국인투자 사전 신고 의무화
-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가진 자국 기업 내 외국 기업의 경영권 규제
 - (2015년) 르노-닛산 자동차그룹 내 프랑스 정부의 투표권 및 지분 확대
 - (2016년) 푸조 자동차그룹의 지분을 중국 동평사에 매각 시 프랑스 정부도 동등한 지분을 및 투표권을 가지는 대주주로 투자 참여
 - (2017년) 프랑스, STX 조선소 경영권이 이탈리아 기업에 인수 거부
 - (2019년) 2019년 2월 네덜란드 정부, 프랑스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Air France-KLM의 지분 14.3%를 사들여 최대주주로 있는 프랑스 정부와 거의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됨. 마크롱 대통령 공식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며 네덜란드 측과 회담 중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투자진출 성공사례 : 네이버

- 2017년 프랑스의 제록스리서치센터 유럽(네이버 랩스 유럽) 인수 후 코렐리아 캐피탈이 운영하는 유럽 투자펀드 'K-펀드 1*'에 총 2억 유로를 출자해 프랑스에 유럽 시장 공략 거점을 마련
- 또한 2017년 6월 프랑스에 자회사인 '네이버 프랑스'를 설립해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 에프(Station F)' 내 '스테이션 그린(Station Green)' 80석을 운영 중
- 2018년 8월 네이버는 네이버 프랑스에 2,60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프랑스 투자에 주력해 유럽 시장 공략 기반을 확립
- 시사점
프랑스 정부가 R&D 및 스타트업 육성(세제적 및 금전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코렐리아캐피탈이 프랑스 및 유럽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전 프랑스 디지털 장관이 설립한 벤처투자사라는 점, 동 사가 운영하는 'K-펀드 1*'이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Seed보다는 Series A, B 또는 C에 해당하는 기성 스타트업체 (10여 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 시 손익분계선이 비교적 짧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 감안한 진출 성공사례

투자진출 성공사례 : SPC 그룹

- 2018년 프랑스의 빌뇌브-다스크(Villeneuve-d'Ascq)에 본사를 두고 파리에 'PB' 간판을 건 두 개의 매장을 개점
- 노르망디 지역에 제빵공장을 건립, 지역의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이용
- 지역 특산품인 이지니 버터(AOC Isigny)와 유제품 사용, 노르망디 지역의 르아브르 국제항구의 물류센터 이용
- 투자액 약 2,000만 유로
- **시사점**
프랑스는 제과제빵 분야의 강국으로 자국 기술에 자존심이 높은 국가임을 고려, 현지 제과점 고유의 인테리어를 유지하거나 버터와 유제품 등 주요 재료를 현지에서 공급하는 식으로 시장의 특수성에 맞춘 진출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

투자진출 성공사례 : 안마의자 전문점 바디프렌드(Bodyfriend)

- 2018년 파리에 법인을 세우고 유럽 공략 거점 마련
- 백화점과 명품 브랜드 매장이 밀집한 파리의 오스만 거리에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총 600m²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 개점
-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생소한 안마의자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할 경제력이 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유럽 시장 공략 계획, 파리를 거점으로 밀라노와 런던 등으로 계속적으로 진출 예정
- **시사점**
마사지 문화가 없는 프랑스에서 생소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우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유명인들을 초청해 프리미엄 상품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의 마케팅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

라. 프로젝트

France THD 프로젝트

- 프랑스 전역에 광통신케이블(30 Mbit/s et 100 Mbit/s) 설치 목적
 - 2013년 시작, 2020년까지 80%, 2025년까지 100% 설치 목표
 - 총 200억 유로 투자 계획, 정부에서 33억 출자
 - 2018년 말 기준 프랑스 국민의 광통신케이블 사용률이 6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2019년 France THD는 기한 내 목표 달성 가능한 것으로 발표
 - 프랑스 감사원은 2030년까지 100% 설치 가능할 것으로 전망

그랑 파리 익스프레스 Grand Paris Express 프로젝트

-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리와 주변 도시를 잇는 대중교통 건설 프로젝트
 -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도시 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
 - 2014년 시작해 2030년 완공 목표, 총 사업비 300억 유로 이상
 - 총 길이 200km이상, 72개의 지하철역을 새롭게 건설 예정
 -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11호선과 14호선을 파리의 북쪽과 남쪽의 외곽 도시까지 연장

- 지하철 4개 라인 새롭게 개설 예정

* 파리를 둘러싸는 15호선, 파리 북쪽 도시를 잇는 16호선, 샤를 드 골 공항과 파리 북쪽 생드니시를 잇는 17호선, 오를리 공항과 베르사유 시를 잇는 18호선 설치 계획

참고 : 그랑 파리 프로젝트(Projet Le Grand Paris)

-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기간 구상되어 2013년 의회 의결을 통해 정책 시행 착수
- 파리 도심 및 도심-교외지 간 대중교통 연결성 강화,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위한 낙후 지역 개보수 건설 프로젝트 및 관련 인프라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한 Ile-de-France 지역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도시 현대화 프로젝트 지칭

루마재단 프로젝트(Parc des Ateliers)

- o 아를(Arles) 지역 출신의 미술품 컬렉터 마야 호프만이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부 프랑스 아를시에 건축 중인 복합 아트센터
 - 총 공사비용 1억 5,000만 유로
 - 디자인은 파리 루이뷔통 재단 아트센터를 디자인한 프랑크 게리(Frank Gehry)가 맡았고, 2020년 완공 예정
 - 중앙 건축 주변을 19세기 프랑스 철도청 건축이 둘러싸고 있고, 이후 복합 전시공간으로 사용 예정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동향

- o 우리기업의 EU 프로젝트 시장 진출 아직 초기 단계
 - 해외 수주는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부터 서서히 증가
 - 한국의 총 해외수주액은 2018년 3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
 -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이 87.4%를 차지하며, 유럽 지역의 경우 1.8%로 매우 미미
 - * 해외수주액 : (2004년) 75억 달러 → (2013년) 652억 달러 → (2015년) 461억 달러 → (2016년) 282억 달러 → (2017년) 290억 달러 → (2018년) 321억 달러(자료 : 기획재정부, 2019년 9월 기준)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국과의 FTA

- 프랑스와의 교역에는 한-EU FTA가 적용됨
 - 2011년 잠정 발효, 2015년부터 모든 규정 완전 발효

한-EU 양허품목

양허유형	EU의 대(對)한국 양허품목(기존 관세율)
즉시 (2011년 7월~)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아세탈수지(6.5%), 연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2013년 7월~)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4~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항공기(7.5~7.7%), 기타신발(16.8%), 자전거(15%), 주방용 도자기 제품(12%) 등
5년 (2016년 7월~)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화물자동차(22%), 컬러 TV(14%), TV 카메라 및 수신기(14%),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기 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등

자료 : 관세청(2019년 9월 기준)

- 한-EU FTA 연계 고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수혜품목 수출 꾸준히 증가
 - 2018년 한 해 증가율이 큰 품목 : 우주선 및 부품(203.4% → 15,442.5%), 합성수지(-7.8% → 30.2%), 산업용 전자기기(47.4% → 170.4%)
 - 3년째 증가품목 : 승용차(4.0%), 반도체(62.7%), 기계요소(16.6%), 플라스틱 제품(27.4%), 정밀 화학원료(17.5%), 화장품(45.4%)
 - 2년째 증가품목 : 원동기(22.9%), 산업용 전자기기(170.4%), 고무제품(42.1%)

20대 대(對)프랑스 수출,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품목명	2017년		2018년		품목명	2017년		2018년	
	수출금액	증가율	수출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총계	2,994,673	21.3	3,540,898	18.2	수입총계	5,745,778	-1.7	5,869,961	2.2
승용차	750,993	89.0	812,775	4.0	화장품	409,716	10.3	456,609	11.4
축전지	294,773	56.7	446,388	51.2	의약품	386,076	30.3	391,356	1.4
합성수지	98,601	-7.8	128,345	30.2	가방	322,963	0.8	375,443	16.2
자동차부품	117,728	-12.4	110,087	-6.5	천연가스	0	0.0	170,859	0.0
원동기	84,976	16.4	104,478	22.9	반도체	225,334	1.8	251,011	11.4
항공기 및 부품	98,687	22.0	81,606	-17.3	항공기 및 부품	159,640	-80.1	195,676	22.6

화장품	46,946	39.0	68,280	45.4	식품	154,904	24.5	193,454	24.9
반도체	103,190	10.2	167,932	62.7	승용차	152,686	16.8	188,317	23.3
화학원료	48,358	7.8	56,819	17.5	기계요소	210,867	-3.1	172,409	-18.2
우주선 및 부품	913,404	203.4	141,966	15,442.5	원동기	380,613	18.9	249,096	-34.6
편직물	46,379	-10.2	42,603	-8.1	패션잡화	140,706	27.7	164,191	16.7
어육	50,405	20.7	44,938	-10.8	화학제품	97,516	6.4	157,331	61.3
석유제품	187,513	290.4	129,205	-31.1	계측제어분석기	186,493	-15.5	144,518	-22.5
전자응용기기	59,870	-9.2	76,034	27.0	자동차부품	268,128	1.2	141,811	-47.1
기계요소	61,324	21.9	71,519	16.6	철강판	117,511	46.9	130,807	11.3
플라스틱 제품	52,490	5.1	66,890	27.4	축산가공품	96,939	7.2	114,623	18.2
산업용 전자기기	24,723	47.3	66,846	170.4	화학원료	106,478	-4.2	111,139	4.4
고무제품	42,036	94.2	59,745	42.1	전자응용기기	97,367	16.9	96,479	-0.9
공구	45,378	30.8	51,107	11.6	식물성물질	86,117	11.4	83,048	-3.6
계측제어분석기	13,791	-5.1	41,428	200.4	우주선 및 부품	63,753	113.9	80,024	25.8

자료 : K-Stat MTI 4단위 기준(2019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위치

- 한국산의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M/S), 중국 및 일본 대비 저조
 - 2018년 기준, 6위 중국(5.2%), 19위 일본(1.0%), 30위 한국(0.5%)
 - 중국 2016년부터 감소세, 일본 2014년부터 증가세, 한국 2015년부터 회복세
 - * 프랑스는 EU 역내 교역비중이 높고(60%) 진출 조건이 까다로운 시장
 - * 한국 주요 수출품의 해외생산 비중 증가 등이 주요인

주요 교역대상국의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국	5.0(6위)	5.34(7위)	5.12(7위)	5.12(7위)	5.15(6위)
일본	0.83(21위)	0.85(19위)	0.99(18위)	1.01(18위)	1.03(19위)
한국	0.43(33위)	0.45(33위)	0.48(29위)	0.46(31위)	0.53(30위)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프랑스 교역

- 2019년 1분기 교역 : 2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
- 수출 : 8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 수입 : 1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
- 수지 : 적자규모 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

대(對)프랑스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5년(증감률)	2016년(증감률)	2017년(증감률)	2018년(증감률)	2019년 1/4분기(증감률)
교역	87.4(↓ 7.7%)	83.1(↓ 4.9%)	87.4(↑ 5.2%)	94.1(↑ 7.6%)	22.1(↓ 13.3)
수출	25.8(↓ 2.2%)	24.7(↓ 4.4%)	29.9(↑ 21.3%)	35.4(↑ 18.2%)	8.3(↓ 5.1)
수입	61.6(↓ 9.8%)	58.4(↓ 5.1%)	57.5(↓ 1.7%)	58.7(↑ 2.2%)	13.7(↓ 17.8)
무역수지	-35.8(↓ 14.6%)	-33.7(↓ 5.6%)	-27.5(↓ 18.5%)	-23.2(↓ 15.6%)	-5.4(↓ 31.6)

자료 : K-Stat(2019년 9월 기준)

나. 투자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대(對)유럽 투자)

- 프랑스는 영국, 룩셈부르크,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에 이어 우리나라의 유럽 투자 7위 국가(2019년 상반기 투자금액 기준)

(대(對)프랑스 투자)

- 2018년 4억 8,754만 달러 투자, 15개 신규법인 설립
 - 정보통신업(11건, 2억 3,500만 달러), 제조업(21건, 1,600만 달러), 도·소매(65건, 2,900만 달러), 부동산업(4건, 1억 4,000만 달러) 등
- 2017년 9,700만 달러 투자, 24개 신규법인 설립
 - 신고건수 122건으로 대폭 상승
 - * 대부분 도매 및 소매업(86건)으로,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이후 활발해진 교류 및 한류열풍 영향
 - 정보통신업(3,900만 달러, 약 40%) 및 금융·보험업(2,600만 달러, 약 27%), 총 67% 차지

한국의 연도별 대(對)프랑스 투자 현황(현지법인 투자 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 도	신고건수	법인설립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년 상반기	32	5	93	39	122
2018년	137	15	126	76	101
2017년	122	24	195	125	97
2016년	53	16	169	48	66
2015년	29	14	25	30	710
2014년	19	8	68	23	6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9년 9월 기준)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불 4차 산업 연계 협력사업

- 한국, 프랑스 양국은 2004년 수립된 ‘한-불 21세기 포괄적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공동대응에 합의(2018년 10월 한-불 정상회담)
 - 과학기술, 신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 및 협력사업 확대 계획
 - 인구 고령화, 장애인 및 신체이동제한, 외국어 소통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미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공적지원,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함께 모색
- 한-프랑스 신산업정책
 - 친환경자동차, 항공, IT, 제약, 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2016년 6월 한불 정상회담)
 -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 가능한 자동차부품, 디지털 의료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품목의 프랑스 진출 협력사업 강화
 - * (자동차부품)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랑스 주요 자동차 제조사 GVC 진입 맞춤형 사업 추진
 -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추진하여 IT 대형 유통망과 국내 IT 기업 간 일대일 상담회 지원

스타트업 분야 진출 및 협력사업 활성화

-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에서 혁신산업에 대한 정부 간 교류 지속 합의(2018년 10월 한-불 정상회담)
 - 프랑스는 유럽 최다 스타트업 국가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렌치 테크(French Tech)’ 운영 중
- 국내 스타트업 IR 및 프랑스 진출희망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체제 구축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력사업

- 양국 기업 간 친환경자동차 기술 공동개발 확대 및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프랑스 정부, 저탄소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전부터 EU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목표안에 부합하는 기본 법인 저탄소전략 수립(EU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및 2050년까지 75% 감축 목표)
 - * 전기자동차 구매 혜택, 탄소배출량에 따른 환경세 부과 및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 * 관련업계의 에너지 저장장치 효율성 제고, 배터리 수명연장 등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확대 중
 - 한-프랑스 기업 간 친환경자동차 기술 공동개발 확대 및 자동차 연관기업 간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노력 강구
 - * 한-프랑스 기업 간 자율주행·친환경자동차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 전자, 반도체, IT, S/W 등 연관 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 지원 필요

한-불 과학기술협력 액션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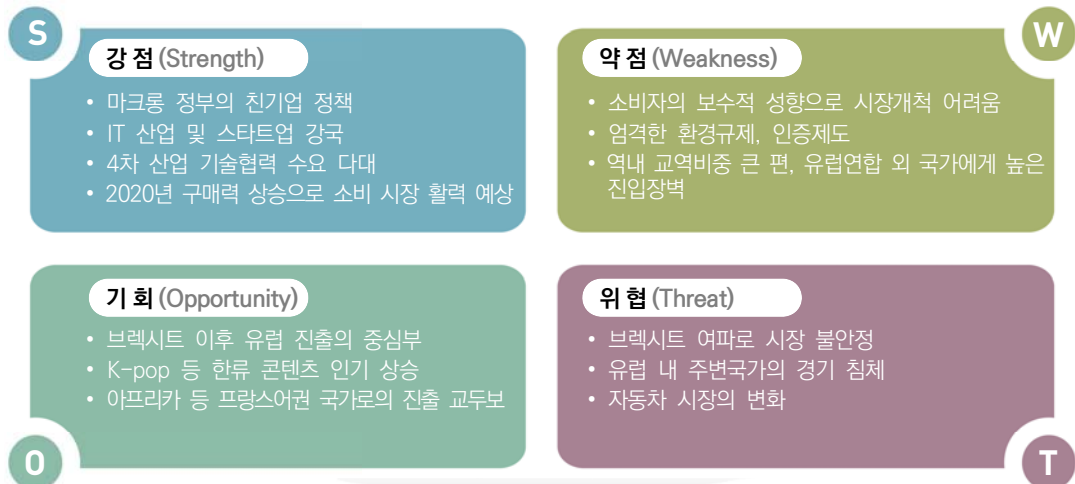
- 2018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한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19~2022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 －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액션플랜 마련
 - * 정책 교류 협력, 학생 및 연구자 교류, 양국 공동연구 사업 신설 및 EU 다자간 공동연구 장려, 국제 공동연구 조직 협력 확대

Ⅲ. 진출전략

- **요약** : 프랑스 정부정책 및 산업별 트렌드 분석으로 유망 시장 공략
 - 기술제휴, 파트너십 등으로 현지기업과의 협력 강화
 - 브렉시트 등 유럽 내 지정학적 변화에 발맞추어 시장개척 전략 강화
 - 한류 흐름을 활용해 소비재 진출 본격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프랑스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과 파트너십 • 신산업 분야 협력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수출확대로 활용 • J-뷰티 등 경쟁제품과 차별화 강화
WO 전략 (기회 포착)	•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통로로 활용 •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로 활용
WT 전략 (위협 대응)	• 친환경차, 미래차 관련 부품 조달 및 공동기술개발

진출전략
미래 산업의 주요 파트너로 입지마련
K-콘텐츠의 다각적 활용
브렉시트를 유럽 대륙 및 신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프랑스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유럽연합 차원의 배출가스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개편되고 있음
- 미래차 시장 개발 및 기술 육성에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프랑스 정부 간 협력으로 양국 기업들이 미래형 자동차 공동기술개발 추진 중
- 전기 배터리 및 자동차부품에서 높은 시장인지도를 갖춘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수립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유럽연합 및 프랑스 정부 차원의 배출가스 규제정책이 강화되는 추세
 - (파리시) 모든 승용차에 친환경 등급제 실시(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등급 표시 의무, 2000년 이전 등록된 디젤 차량은 낮 시간 운행 금지), 2024년부터 디젤 차량 파리 시내 진입 금지
 - (EU) 국제표준 자동차연비측정시스템,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 Test Procedure) 2018년 9월부터 모든 신규 차량 제작에 적용됨
 - *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측정을 위한 시험 주행시간(20분 → 30분), 거리(11km → 23.25km), 평균 속도(33.6km/h → 46.5km/h), 최고 속도(120km/h → 131km/h) 등 증가
 - (EU) RDE(Real Driving Emission) 테스트 시스템 : 장비를 차에 부착하고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진행하는 배기가스 테스트, 2019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 예정
- 2018년 5월 프랑스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의 전략 계획 발표
 -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판매 5배까지 증가, 판매될 전기차의 10%만큼(약 100,000여 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프랑스 및 유럽 차원의 배터리 산업 시장 개발, 수소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목표
 - 자율 자동차 생태계 창조 및 새로운 모빌리티 시스템 공급
 -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 * 다양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 생성, 2022년까지 매년 약 25,000명, 기술직 및 40,000여 명의 서비스직 고용 계획
 - 인공지능 차량 등 미래 기술개발 투자로 자동차 업계 경쟁력 강화
 - * 프랑스 투자은행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약 150~180개 프로젝트 양성, 기업의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에 약 1,800만 유로 예산 투자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카 시장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이 WLTP 시스템을 정식 발효함에 따라 자동차 시장 대대적으로 개편 중

- 유럽연합의 CO₂ 감소 수치 목표 도달을 위해 디젤차 판매를 줄여야하고, 이를 위해 전기차가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상황
-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부품, 경량화 소재분야 공동 기술개발 협력 심화
 -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Renault)는 르노-삼성을 통해 LG전자 및 SK텔레콤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공동 개발 추진 중
 - IT 응용기술 중심의 설비구조 고도화, 소재경량화 관련 구체적 기술협력, 수요 발굴 및 우리 부품기업 연결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필요

2-2. 브렉시트 이후 유럽 및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19년 11월부터 브렉시트가 예정되어 있고, 영국 내 정치상황에 따라 정확한 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나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브렉시트 상황이 펼쳐질 전망
-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기업 유치 정책과 친기업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프랑스에 대한 호감도 상승
- 우리 기업들도 프랑스의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고려해 유럽 및 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 활용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마크롱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 내 국가로 이주하려는 영국 거점의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
 - 프랑스에 자리 잡는 외국계 기업 직원 8년 동안 소득세 50%까지 감면
 - 영어권 자녀들을 위해 2020년까지 파리에 국제학교 세 곳 추가 개설
 - 영어로 금융 분쟁 다루는 특별법원 설치
 - 부유세 폐지 및 친기업 정책 유지
 - 프랑스 투자 호감도 상승
 - A.T. Kearney에 따르면, 프랑스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매력도가 높은 투자지역
 - 프랑스가 중국을 앞선 것은 처음이며, 2017년, 2018년 7위에서 두 단계 상승
 -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로 영국 이외의 유럽에서 대안을 찾는 금융투자회사가 증가한 것과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
- * A.T. Kearney(2019년 5월 발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유지되는 프랑스와의 교역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나,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해외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프랑스 정책 활용 필요

- 더불어 프랑스는 역사적, 산업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불어권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 가능
 -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저임금으로 우리 기업이 주목하는 미래 시장이지만 비교적 짧은 진출 역사, 전반적인 정보접근의 한계, 네트워크 부족 등의 어려움 존재
 - 유럽의 구 식민종주국들은 아프리카 구 식민국가와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바 아프리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 기업과 함께 협력진출 전략을 모색 필요

2-3. 한류 열풍을 연계 소비재 수출로 활용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K-pop의 인기와 뉴미디어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보급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들을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 수출 가능성을 높일 전략 수립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음악, 방송 등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의 대중적인 인지도 상승
 - 2019년 6월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은 2시간 만에 전석 매진되어 프랑스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
 - * 8만 석 규모의 공연장 전석을 채운 세계 최초의 아시아 아이돌 그룹으로 중요하게 소개
- 온라인·모바일 신매체를 통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접촉 기회 증가
 - 프랑스의 지속적인 통신망 개선정책 및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인터넷으로 K-Beauty, K-POP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지속 확대되는 중
 - 동 인기가 국산 기타 콘텐츠 소비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
 - * 자료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한류보고서(2018년)
- 한류 연관 소비재의 수출 증가
 - 화장품, 식품류, 생활용품 등 전 방위 분야에서 한국산 소비재 인기
 - * 한국 기업 VT 코스메틱,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한 향수 출시해 세포라(Sephora) 입점
 - * 모노프리(Monoprix) 내 'K-Beauty' 코너 상설 운영 중
 - * 피카르(Picard), 인터마르쉐(Intermarche) 등에서 PB상품으로 냉동비빔밥, 불고기 출시

2018년 한류 연관 소비재 대(對)유럽 수출 증가율

(단위 : %, 전년 대비)

품목	화장품	미용기기	미역	장류	고추장	김치	면류
증감률	32.7	158.7	63.1	33.1	34.9	7.4	5.1

자료 : K-Stat(2019년 9월 기준)

- 한식 열풍으로 이어지는 한류 문화
 - 파리 시내 한식당 수 매해 계속적으로 증가(2017년 109개 → 2019년 130개)
 - 판매되는 음식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로 일반적인 식사 뿐 아니라 떡, 봉어빵, 팔빙수와 같은 디저트 전문점도 큰 인기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품질과 디자인으로 차별화한 소비재 발굴
 - 4대 소비 트렌드(웰니스, 친환경, 혁신성, 실용성)에 부합하는 제품
 - * 화장품(천연 마스크시트), 친환경 완구류, 기능성 주방용품 등
- 주요 품목별 유망 전시회,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 진출 지원사업 참가독려
 - 바이어 발굴, 시장성파악,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 전시회 참가기업의 30~50%가 유럽 이외 국가 출신, 유럽과 제3국 진출 플랫폼으로 기능
- 인증확보, 현지 전문 에이전트 활용한 시장접근 방법 홍보
 - CE(공산품), LFGB(조리용기구, 부속용품), RoHS(전자제품), CPNP등록(화장품) 등의 인증 시스템 인지
 - 현지 취향에 맞는 디자인, 브랜드네이밍, 유통 네트워크 보유한 분야별 전문 에이전트 활용
 - 국내 소비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비재 GP사업 및 M&A추진
 - * 글로벌 패션·뷰티업체 대상 GP사업 확대 추진
 - * 현지 유망 브랜드 인수를 위한 M&A형 진출 지원 사업 고려
- FTA 활용 한류 파생 콘텐츠의 프랑스 진출 확대 지원 필요
 - 한-EU 콘텐츠 공동제작 계약 체결 등 가시적 성과창출 지속 노력
 - * 한-EU 문화협력의정서(2015년 12월) : 한-프랑스 시청각 콘텐츠 공동제작 결과물을 양국에서 모두 자국산으로 인정, 세금 및 영상물 쿼터 분야 특혜 가능

바이어 인터뷰

- 기업 이름 : SELECT PARTNERS(구매담당자 : Sabah Masmoudi)
 -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형 뷰티체인, 에스테틱, 스파 등에 화장품 유통
 - 프랑스, 모로코에 회사 보유
 - 한국 화장품 수출 경험 다수
- 관심분야
 - 마스크팩을 비롯한 화장품 및 기타 뷰티 소비재
 - 최근 유럽 시장의 수요에 따른 천연 유기농 화장품
- 한국제품 평가
 - 마스크팩 시트 등 화장품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특히 포물러는 세계 최강 수준으로 평가
 -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편

- 프랑스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권 시장도 커버를 하는데, 특히 북아프리카권에서는 한류의 영향이 큼. 한국 여성들의 화장법과 스타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한국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

- 화장품 패키징 언어가 대부분 영어로만 준비 되어 있는데, 유럽진출을 원한다면 현지 언어 표기는 필수
- 소량 주문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프랑스 소비자들은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직접 사용해보고 느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입상에게도 시장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험주문이 필요함.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반영, 처음부터 대량 주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음
- 한국 기업들은 독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성장한다는 개념으로 사전에 서로의 사정에 맞게 생각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
- 사전에 유럽 시장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필요함. 바이어 입장에서 유럽 시장 진출의 레퍼런스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

2-4. 5G 통신망 구축 등 프랑스 내 디지털 산업 활성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프랑스는 IT 인프라 구축의 후발주자로 디지털 산업을 강화 중
- 또한, 5G 통신망 구축 산업이 최근 가속화됨에 따라 IT 품목 및 광케이블, 통신장비 부품 등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프랑스 ICT 산업 성장률 꾸준한 증가세
 - 프랑스 내 총 4개의 이동통신사가 존재하며 통신 산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였으나 IT 인프라는 뒤늦게 구축되어 2015년부터 본격적인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 시행 중
- 프랑스 5G 산업 가속화에 따라 통신장비 시장 개척 가능성 커짐
 - 2018년 7월,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조정기관(ARCEP) 유럽연합에 기반한 5G 로드맵 발표
 - 2019년 하반기 주파수 경매 시작, 2020년 말까지 주요 대도시에 상용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국내 관련 업체들은 점진적인 광대역 5G 주파수 자유화와 함께 전개될 광통신장비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노력 필요
- 주요 한국 기업 진출 현황
 - KT 협력사인 고려오트론, 프랑스 제1 통신사 오렌지 텔레콤과 광통신부품 수출 계약(2019년 9월)
 - LG 및 삼성전자(휴대폰 및 가전제품), 프랑스 법인 설립(1988년)
 - 현대중공업, 광케이블 대(對)프랑스 수출실적 양호

2-5. 항공기 부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프랑스는 세계 2위 및 유럽 1위의 항공기, 우주장비 생산국
 - * 관련 산업 매출 규모 매해 성장세
- 최근 역외 아웃소싱이 증가하는 추세를 활용,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노려볼 필요가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근 잇따른 미국 Boeing사의 항공기 추락사고 영향으로, 당분간 Airbus사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이며, 실적 또한 호조. Airbus사는 파리 에어쇼에서 Boeing사 주문량의 두 배인 700대 이상의 항공기 수주 체결
 - Airbus사는 2019년 올해 880~890대의 항공기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업 이익 또한 15% 가량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제1의 수출산업
 - 2018년 기준 무역흑자 규모가 308억 유로, 전년 대비 0.43% 증가
 - * 항공기 완제품 매출액의 86%, 부품 매출액의 44%를 수출을 통해 달성
 - 항공우주산업 매출규모는 2018년 기준 654억 유로, 전년 대비 1.2% 증가
 - * 민간항공기산업 매출규모 : 504억 유로, 6.5% 증가
 - * 군용항공기산업 매출규모 : 150억 유로, 1.4% 증가
 - 항공기 부품산업 매출규모는 219억 유로, 전년 대비 4.7% 증가
 - 2029년까지 세계 항공우주 시장의 50% 이상(3조 2천억 유로) 점유 전망
 - * 자료 : 프랑스 항공우주산업협회GIFAS(2019년 4월 발표)
-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활동분포 : 항공산업 80%, 방위산업 12%, 우주산업 8%
- 주요 진출 국가 동향
 - 중국 및 기타 신흥 시장의 항공기 원자재 및 부품 공급 기업 증가추세
 - 프랑스 주요 항공기 제조사의 항공기 부품 아웃소싱 협력 강화로 항공기 부품 역외 수입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18년 프랑스 항공기 및 부품 수입 시장 국가별 점유율

(단위 : %)

원산지	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모로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한국
점유율	52.8	17.2	8.4	4.7	1.8	1.4	1.3	0.3
순위	1	2	3	4	5	6	7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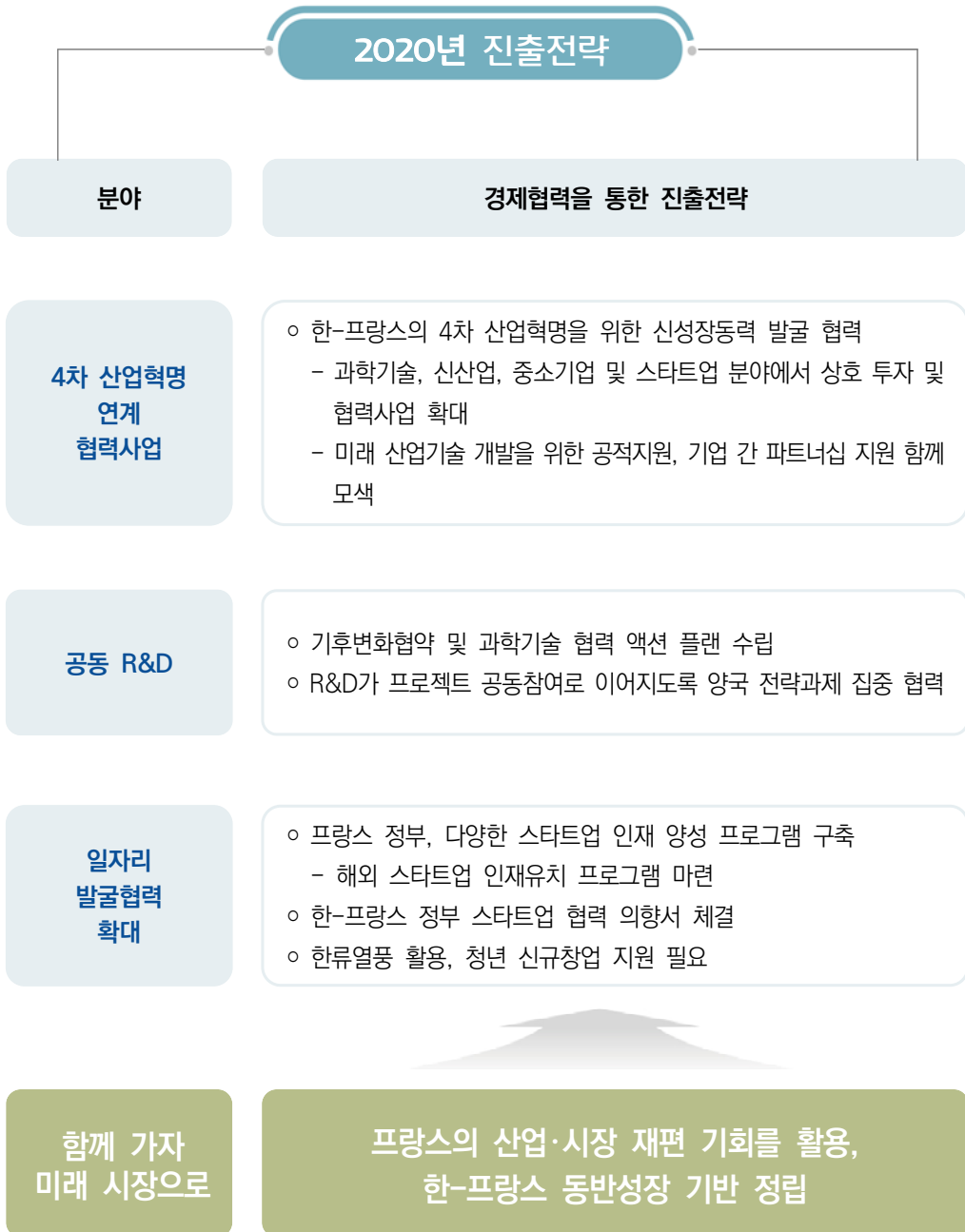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재 초보적인 한국 항공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필요
 - 마케팅 플랫폼 GVC 진입지원 맞춤형 사업 확대
 - R&D 협력, 합작투자 발굴 지원
- 유럽 내 항공기업 M&A 물색 통한 현지진출 고려 필요
 - Airbus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생산 제품군의 단순화·전문화 추진 중

3 한-프랑스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4차 산업혁명 연계 협력사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프랑스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탄탄한 스타트업 강국
 - * 프렌치 테크 및 창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 양국에서 정부차원의 교류 협력 합의가 계속되는 만큼, 기업 간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 구축 활성화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프랑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지원 확대
 - 프랑스 정부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인 프렌치 테크 프로그램 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강화
 - * 프랑스 내 창업기업 59만 개로 유럽 1위 기록(2017년)
 - * 프랑스 디지털 기업 및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1,500만 유로 정부 지원
- 프랑스 사물인터넷 산업,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기록
 - Montaigne Institute와 A.T. Kearney 컨설팅사에 따르면, 프랑스 IoT 시장규모는 2020년 까지 152억 유로에 달할 전망
- 삼성전자, 파리에 세 번째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 조성 예정
 - 파리 AI 센터 연구 인력 연내 50명 이상 확대 계획
- 네이버(Naver),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진출 가속화
 - 2016년 12월, 플뢰르 펠랭 전 프랑스 디지털장관이 설립한 VC 코렐리아(Korelya)에 약 1억 유로의 펀드 출자
 - 2017년 AI 연구소인 유럽 제록스리서치센터를 인수하며 ‘네이버랩스 유럽’으로 사명을 변경 및 프랑스 현지법인 설립
 -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 F(Station F)에 스타트업 육성 공간(약 80석 규모) ‘스페이스 그린’ 마련
 - 2017년 10월, 코렐리아 캐피탈에 1억 유로 추가 출자 및 파트너십 체결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프랑스 신산업정책
 - 친환경자동차, 항공, IT, 제약, 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2018년 6월 한불 정상회담)
 - *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는 2014년부터 ‘한불 기술협력포럼’ 정기적 개최 중

-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 가능한 자동차부품, 디지털 의료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품목의 프랑스 진출 협력사업 강화
 - * (자동차부품)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랑스 주요 자동차 제조사 GVC 진입 맞춤형 사업 추진
 -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추진하여 IT 대형 유통망과 국내 IT 기업 간 일대일 상담회 지원 등
- 한-프랑스 기업 간 공동기술 협력을 통한 협력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양국 스타트업과 국내 중견·대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프랑스 스타트업 자금 조달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예) 삼성전자, 프랑스 IoT 기업 시그폭스에 지분투자 및 기술협력
 - 양국 현지 유망 스타트업 인수를 위한 M&A형 진출 지원 상호협력

3-2. 공동 R&D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프랑스 정부의 저탄소전략에 발맞추어 친환경자동차 등 공동 기술개발모델 확립 필요
 - 기업 간 친환경자동차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 양국 정부,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협정 수립
 - 교통, 에너지, 기후변화방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로봇, 보건 분야 등의 기업 간 협력 강화 목표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수소차 개발 협력
 - 2018년 10월 현대자동차와 프랑스의 가스회사 에어리퀴드(Air liauide), 전력회사인 엔지(Engie), 수소연료전지차량 시장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2019년 기준 프랑스 전역에 운행 중인 100대의 택시 중 62대는 현대자동차, 38대는 토요타 생산
 - * 프랑스 전역에 약 300대의 수소차 운행 중
- 기후변화협약관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협력사업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전부터 EU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안과 부합하는 기본법인 저탄소전략 수립(EU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및 2050년까지 75% 감축 목표)
- 한-프랑스 우주협력강화
 - 한국항공우주 연구원과 프랑스 국립우주 연구원 간 교류 활성화

- 한-프랑스 협력 우주기후관측소 설립 서명(2018년 한불 정상회담)
- 2019년 한-프랑스 우주포럼 한국에서 개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친환경자동차 등 기술 공동개발 확대 및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전기자동차 구매 혜택, 탄소배출량에 따른 환경세 부과 및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 한-프랑스 기업 간 자율주행·친환경자동차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 전자, 반도체, IT, S/W 등 연관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 지원 필요
-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액션플랜 마련
 - 정책 교류 협력, 학생 및 연구자 교류, 양국 공동연구 사업 신설 및 EU 다자간 공동연구 장려, 국제 공동연구 조직 협력 확대
 - 우주, 기후변화,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소재·나노,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과학 문화 확산 추진

3-3. 일자리 발굴협력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프랑스를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마크롱 정부, 1인 창업기업지원제도 등 IT 분야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양국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등에 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주요 이슈

- 프랑스 정부, 디지털기업 및 스타트업 양성 지원을 위해 프렌치 테크 프로그램 발표
 - ICT 분야 기업지원을 위해 2억 유로 투자펀드 조성, 해외 ICT 분야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1,500만 유로 지원 자금 조성
- 해외 스타트업 인재유치를 위해 ‘프렌치 테크 티켓’ 프로그램 마련, 100여 개의 해외 유망기업 선발 예정
 - 선발된 해외 스타트업 기업에게 개발 보조금(12,500유로 상당), 사무 공간, 프랑스 비자, 체류증 발급 등 행정지원 혜택
 - 프렌치 테크 비자는 IT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체류비자 시스템
 - * 스타트업 창업가의 경우 : 정해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관(들)에 프로젝트(최소한의 금융자금 약 17,981 유로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소개서 필요)를 보내 선택되어야 함. 그 후에 해당 인큐베이터에서 프랑스 지방기업노동국(DIRECCTE)에 공문을 보내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그 증서를 토대로 4년 기한의 체류증 신청 가능

* 스타트업에 고용되기 위한 경우 : 최소 석사 이상의 학력이 기본. 프렌치 테크 비자 발급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 리스트 중의 하나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연봉 35,963 유로 이상의 조건 필수

- 양국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 협력 강화
 - － 한-프랑스 간 스타트업 기업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향서 체결(2015년 11월)
 - － 프랑스 측, 한국에 프렌치 테크 허브 설립(2016년 3월), 양국 간 각각 5개 스타트업 교차 지원 계획

진출전략

- 프랑스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대 및 현지 체류비자 여건 유연화 필요
 - － 국내 스타트업의 프랑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 및 현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상담 지원 : 프랑스의 서울 프렌치 테크 허브와 같이 프랑스 내 K-tech 허브 설립 지원
- 프랑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활용, 청년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 － 한류 문화는 프랑스에서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 － K-pop,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 소비재와 식문화에 관심 증폭
 - － 한국 청년들이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을 기획해 작은 자본으로도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 체류 자격과 사업자 등록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양국 간 협력 필요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 결제 의무 불이행	필수 인증 준비
■ (현황) - 프랑스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결제 의무 불이행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기업 파산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가능 ■ (대응전략) ☞ 거래 전 바이어의 신용조사 필요. 프랑스 무역 보험 기관 Coface(www.coface.fr)에서 프랑스 바이어의 신용 조사 가능 ☞ 바이어에게 최근 3년 이내에 거래했던 기업 리스트 (Trade Reference)를 요청, 리스트 중 일부 기업에게 연락해 바이어의 신용도 확인 가능	■ (현황) - 프랑스로 수출하려면 상품 대부분이 프랑스의 규격인증(NF)이나 EU 인증(CE 마크, 에코 라벨, 에너지 라벨, VOC 함유량 라벨, 화학물질 함유량 라벨, 식품 라벨 등) 획득 필요 - 또한 품목에 따라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인증서 (원산지증명서) 필요 ■ (대응전략) ☞ 인증서·증명서를 갖추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을 잘 인지하고 바이어 부담 부분을 명확히 파악해 계약에 반영

거래 방식	수입자 재무제표 이슈
■ (현황) - 프랑스 바이어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신용장보다는 금융비용이 적은 T/T나 DA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 다수 - 대만 등 경쟁국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요구에 잘 순응하고 있어 L/C 거래만 고집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움 ■ (대응전략) ☞ 과도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선수금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선적 직전에 잔금을 받거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제반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 (현황) - 프랑스 법인은 매해 연차 회계 보고서를 작성 및 발표. 프랑스 규정상 연차 회계 보고서 1부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제출 ■ (대응전략) ☞ 프랑스기업 등록 관보(www.bodacc.fr)에서 기업의 자본 상황 확인 가능

현지 관행
■ (현황) - 프랑스의 계약서는 한국보다 복잡하고 분량도 많은 편. 한국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불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망라한 계약서를 오히려 더 중시 - 프랑스기업들은 비즈니스 상담 시작 전이나 마친 후 상담 내용을 비밀에 부친다는 내용의 협약,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 ■ (대응전략)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상호 간에 책임과 권리를 분명히 해두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료의 철저한 숙지 필수 ☞ 프랑스인들이 사용하는 무역용어는 한국과 다른 것이 많으므로 항상 재확인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803	수입관세율(%)	0%
	수입액(US\$백만)	7,668(2019.6)	대한수입액(US\$백만)	39(2019.6)
항공기부품	선정사유	- 2018년 Airbus는 중소형 및 대형 항공기 등 총 731대 수주, 688대 인도 - Airbus는 2025년까지 각 모델별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MOU, (주)샘코와 에어버스헬리콥터사 간의 수입계약 등 항공기부품 납품 협력 활발 - 항공기 부품업체의 초화황기 진입		
	시장동향	- 한국의 대(對)프랑스 수출 2.2% 증가(2019.6) - 프랑스 수입 시장 한국 점유순위 : 14위 - 프랑스 항공기 생산규모 : 2018년 696억 달러(69% 수출) - 2011년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감		
	경쟁동향	- 대(對)프랑스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 2위 미국 -21.9%, 10위 중국 14.7%, 22위 일본 -6.8% - 15위권 내 수출국 중 2위 미국, 6위 캐나다, 13위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 증감률 상승세 - 2017년 기준, 380여 개사가 Airbus에 납품 중. 대부분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 기업들 - 프랑스 항공기 부품업체 Premium Aerotec은 최근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날개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A350 등 신모델에 자사부품 납품 개시 - 최근 Airbus사는 AVIC(중국항공공업그룹)과 협동업체 항공기(항공기 기내 복도가 한 줄인 항공기) 생산과 관련된 새로운 협정을 맺음		
	진출방안	- Airbus는 기존 소싱업체뿐 아니라 신규 소싱업체를 모색 중 - 국내 KAI사의 A320 항공기 날개하부구조물 및 꼬리날개 납품사례 등, Airbus는 국내 기업과의 소싱, 파트너십, 협력 기회에 적극적임 -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비교우위 기술력이 뒷받침됨은 물론, 현지 까다로운 인증, 규제, 절차에 대한 이해 필수		
품목명 2	HS Code	8507	수입관세율(%)	0%
	수입액(US\$백만)	1117(2019.6)	대한수입액(US\$백만)	208(2019.6)
축전지	선정사유	- 대(對)프랑스 수출 10대 품목 중 최근 성장폭이 큰(2018년 63.4%) 품목 -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및 재충전식 하이브리드카 수요 확대에 따른 축전지 수입·수요 지속 증가세		
	시장동향	- 한국의 대(對)프랑스 수출 6.03% 증가(2019.6) -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순위 : 2017년 처음 차지한 1위 유지 - 한국 제품의 가성비 및 인지도 지속 상승세 - 전기자동차 도입 확산과 더불어 핵심 부품인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기술적 변화에 따른 전환 시점에 돌입 - 유럽연합 차원의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시장 또한 성장할 전망		
	경쟁동향	- 대(對)프랑스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 2위 독일 8.1%, 4위 중국 23.3%, 8위 일본 -28.0%, 13위 미국 1.8% - 지난 몇 년 전부터 스페인, 중국산 제품이 강세였으나 한국산도 2년 전부터 한국 기업의 R&D 제고에 따른 제품 품질력 향상으로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일본-프랑스 차세대 차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5. IPCEI 프로젝트(유럽 공통 이익 주요 산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 프로젝트 발표		
	진출방안	- 유럽 주요 브랜드 기업 제품과 한국 및 중국 등 OEM 제품으로 시장이 양분 - OEM 시장과 A/S 시장의 동시 공략이 필요 - 시장진출에 중요한 브랜드 인지도나 가성비 제고 노력 강구 - 브랜드 제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지 판매물류망 및 A/S 체제 구축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KOTRA 등이 제공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적극 이용해 적기 납기 및 운송 부담 최소화 필요		
품목명 3	HS Code	540761	수입관세율(%)	0%
합성 필라멘트사·합성섬유	수입액(US\$백만)	35(2019.6)	대한수입액(US\$백만)	11(2019.6)
	선정사유	- 프랑스 수입 시장 한국 점유순위 1위 - 한국의 대(對)프랑스 수출 4.5% 증가(2019.6)		
	시장동향	- 반도체, 의학, 바이오산업군에서 방진복 제작에 사용되는 섬유로 10위권 내 아시아 국가의 점유율이 큰 시장		
	경쟁동향	- 2018년 프랑스 시장에 진입 한 것으로 보이는 인도의 가파른 성장세 - 대(對)프랑스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2위 중국 -13.4%, 4위 인도 7640.7%, 9위 일본 -27.7%		
	진출방안	- 우리 제품의 수출 점유율이 1위인 상황으로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오른 인도 등의 국가 제품과 차별성을 두고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		
품목명 4	HS Code	820770	수입관세율(%)	0%
밀링용 공구	수입액(US\$백만)	71(2019.6)	대한수입액(US\$백만)	13(2019.6)
	선정사유	- 대(對)한국 수입 증가율 2018년 7월 145.5%, 2019년 6월 15.2%로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증가세 시현		
	시장동향	- 지속적인 산업용 교체 수요 존재. 특히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기용 부품 소재 가공 수요 증가 추세 - 산업계 신소재(예 :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K)이나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FK) 소재) 사용 확대와 더불어 신소재 가공을 위한 신규 공구 수요 확대 전망		
	경쟁동향	-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입지가 강한 편으로 시장 내 선도기업은 독일의 Walter 및 미국 Ingersoll 등 - 독일, 스위스, 미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인 반면, 중국, 한국 등 2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상승세 지속		
	진출방안	- (제품 차별화) 기계제조,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계 고객을 타깃으로 하여 맞춤형 제품 공급이 매우 중요, 다양한 작업환경과 조건에 맞는 효율적인 공구로 승부 필요 - (고정밀 복합소재 유망) 각 산업 분야에서 합금강, 내열합금강 등 복합 소재가 대안으로 부상 중으로 효율적인 복합 재질 가공을 위한 고부가가치 공구 시장 공략이 바람직		
품목명 5	HS Code	854470	수입관세율(%)	0%
광섬유 케이블	수입액(US\$백만)	301(2019.6)	대한수입액(US\$백만)	28(2019.6)
	선정사유	- 대(對)한국 수입 증가율 2018년 417.9%, 2019년 6월 243.8%로 주요 경쟁국 대비 높은 증가세		
	시장동향	-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 및 가정용 수요 및 지방의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용 수요 증가 추세 - 산업의 디지털화 정책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입지가 강한 편으로 시장 내 선도 국가는 1위 중국 186.6%, 4위 미국 62.5%, 6위 한국 243.8%, 8위 독일 23.2% 등 - 독일과 스페인을 제외한 상위 10개국 대부분에서의 수입률이 상승세이긴 하나, 10위 권 내에서는 한국의 상승률이 가장 큰 상황		

	진출방안	- 지방정부의 광케이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보 입수 활동 강화로 조달 시장 진출 노력 강화 필요 - 현지 이동통신사들과 협업하는 장치업체들을 통한 가정용 및 기업용 광케이블 시장 진출전략 바람직		
품목명 6	HS Code	1902	수입관세율(%)	0%
인스턴트 면류	수입액(US\$백만)	367(2019.6)	대한수입액(US\$백만)	2.5(2019.6)
	선정사유	- 2007년 한국 식품매장 체인이 설립되면서 한국 인스턴트 면류 매년 수요증가세		
	시장동향	- 한국의 대(對)프랑스 수출 최근 2년간 85% 및 12.9% 지속 증가했으며 2018년 7월 기준, 기저효과로 8.6% 감소 - 프랑스 수입 시장 한국 점유순위 : 4년째 13위 유지 - 프랑스 내 한국 교민수는 만 6천여 명으로 적은 편이나 100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계 교포인구와 매운 맛을 선호하는 현지인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인스턴트 면류의 소비자 층이 두터워짐 - 또한 K-Pop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호기심을 가진 프랑스인들의 소비율이 늘고 있음		
	경쟁동향	- 대(對)프랑스 경합국 점유순위와 수출 증감률 : 5위 태국 ▽1.2%, 10위 중국 13.3%, 17위 말레이시아 88.8%, 19위 일본 30.7%, 22위 대만 22.1%, 24위 인도네시아 49.7%		
	진출방안	- 한국 소비자가 아닌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순하고 다양한 소스 개발로 현지 대형 유통망 공략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IT·보안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선정사유	-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유럽의회 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EU 회원국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개인·사생활 정보보호 의무화로 모든 기업에 규제준수 의무 발생 - 4차 산업혁명으로 사이버 보안 및 IT 산업 성장 - 건설경기 붐으로 인해 신축 빌딩, 아파트, 주차장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시장동향	- 프랑스 정부, EU 개정 도입, 실시 중 -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이버 위협, 보험 솔루션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EU의 사이버 시큐리티 시장은 세계 시장의 25%를 차지, 프랑스는 독일, 영국과 함께 EU 내 3대 강국임. 2020년 EU 사이버 시큐리티 시장규모 22Mds 유로 전망 - 미래 산업정책을 통해 생산시설의 ICT 융합 자동화 추진으로 시설의 통합 IT 컨설팅 수요 증가 - 현지 대기업들은 IT 솔루션 제공업체를 통해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중
	경쟁동향	- 신규 도입된 규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는 생소하며 규정 스테디에 많은 시간이 소요 - GDPR 규정 도입 이후,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장 진입 시 완벽한 규정 숙지가 필요함(메리어트 호텔그룹, 브리티시 항공사 등에 벌금 부과) - IT 및 금융 분야에서 보안 관련 기술이 각광받음 - CCTV, IP 네트워크, 출입제어장치 등 보안 관련 다양한 품목으로 활동 중
	진출방안	- 한국에서 진행되는 GDPR 관련 실무 교육 참가 필요 - 현지어 프로그램 구축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현지 업체와의 기술적 협업 필요 - 현지 거래선 발굴을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전시회 참여 및 사절단 참가 등 필요
품목명 2		
콘텐츠 · 게임	선정사유	- 2018년 기준 프랑스 비디오 게임 시장의 총 매출액은 49억 유로로 2017년 대비 15% 성장, 역대 최고 매출 기록 - 향후 3년간 6% 성장세 전망
	시장동향	- 프랑스 시장은 비디오 게임이 강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약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어려웠으나,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유럽 게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률은 22%로 콘솔 15%, PC게임 10% 대비 가장 큰 성장률 - 18세 이상 프랑스 인구의 68% 이상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2인 이상이 게임을 하는 경우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프랑스의 스마트기기 소비는 유럽 내 2위로 영국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 VR 고글 제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족 증가
	경쟁동향	-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게임업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음 - 모바일 게임은 영국 Kings, 프랑스 Ubisoft 등 글로벌 게임업체가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 게임 선호도가 높음 - 프랑스는 콘솔과 PC 게임에 강한 면을 보여 왔으나, 최근 기존 게임 개발자들이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어 높은 수준의 모바일 게임 개발 중 - EA, Sony, Nintendo 등 미국·일본 기업이 시장 장악

	진출방안	- 애플 핸드폰 사용자 비율이 높아 안드로이드, iOS용 두 버전 개발 필요. 언어 현지화 필요 - 단순한 구성을 선호하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없으므로 소량의 데이터 소모 게임으로 진출 가능 - 인기있는 게임의 장르가 한국과 매우 다르므로, 프랑스 시장을 이해하고 한국 시장과의 접점을 발전시켜 진입할 필요가 있음 - 게임 관련 전시회 혹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게임사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제해도 필요
품목명 3		
전자상거래	선정사유	- 온라인 유통 시장, 6년째 연평균 12% 이상 증가율 기록(2013년 12.5%, 2014년 12.4%, 2015년 13.5%, 2016년 12.4%, 2017년 11.6%, 2018년 13.4%) - 모바일 유통 시장, 6년째 평균 40% 이상 증가율 기록(2013년 57.5%, 2014년 55.6%, 2015년 53.7%, 2016년 37.0%, 2017년 31.8%, 2018년 22%)
	시장동향	- 네트워크 환경 개선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 시장 지속 증가 중. 특히 위생용품, 화장품 온라인 시장 - O2O, O4O 유통 시스템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옴니 채널화가 가속하며 E-Commerce 시장 지속 증가세
	경쟁동향	- 프랑스 굴지의 대형 유통업체들 Cdiscount, Veepee의 플랫폼과 함께 Amazon, eBay 등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이 시장 확장 중(전자상거래 시 타블렛 보다는 모바일과 PC 이용 추세 뚜렷)
	진출방안	- 유럽에 단독 또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글로벌 플랫폼 입점으로 인근 유럽국 시장 동시 공략 및 홍보 병행 필요
품목명 4		
전자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 전 세계 eHealth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600억 달러로 2010~2015년 중 연평균 성장률 16% 기록 - 프랑스에서는 2020년 eHealth 시장규모가 4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부문의 ICT화를 위해 2019년 전년 대비 2.57% 늘린 4억 유로 예산 책정 및 2020년까지 공공 의료 시스템 정비에 34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시장동향	- 전자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따라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공공 보건소-병원 간의 진료 내역을 전자시스템으로 공유하는 시스템화 및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작업 중 - 대규모 투자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4.2억 유로를 병원의 디지털화에 투자 중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유로 및 전 국토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유로 투자 등 - 현재 17%의 프랑스 사람들이 eHealth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고 답변, 대부분이 운동과 식습관 개선용 애플리케이션
	경쟁동향	-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는 당뇨병자 원격진료 솔루션(Diabeo)을 스타트업 업체 및 연구소와 공동 개발해 17개 지방의 700명 환자 관리 중 -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와 프랑스 파트너사 La Paillasse는 암 및 전염병 솔루션 연구를 위해 오픈 빅데이터 및 데이터 챌린저를 이용한 연구 프로그램(6개월) 운영 중 - 독일의 지멘스 헬시니어, 프랑스 사노피, 스위스 로슈 등 글로벌 기업들이 프랑스 eHealth 시장 선도 - 현지 59개 스타트업 회원 업체들로 시작한 France eHealth Tech 협회는 현재 120개 이상의 스타트업 업체들이 모인 협회로 발전, 회원 업체들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 - 미국 Alere사는 여러 공공병원들과 함께 심장 질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원격감시 프로그램 운영 중
	진출방안	- 현지 IT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진출

품목명 5	
핀테크 (FinTech)	선정사유 - 프랑스에서는 법률적 및 기술적 걸림돌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 및 시장이 도입 단계였으나, 최근 프랑스 정부는 블록체인 적극적 허용 방침으로 선회 *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리브라는 불어 방침 - 2018년 6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일환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 - 현재 사용 중인 분야는 블록체인은 바코드 스캔을 통한 자산추적(Asset Tracking), 돈, 자산 및 계약서 이전, 그리고 신속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정보 수집, 추적 및 전달 등으로 극히 한정적
	시장동향 - 2017년 프랑스 전체 529개의 핀테크 기업이 존재하며 그 중 103개사는 은행, 기업 대상의 B2B 사업 - 프랑스 정부는 IT형 금융 생태계인 핀테크를 프랑스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육성정책 개시 -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가상화폐 소득세율을 45%에서 19%로 인하 - ICO를 원하는 기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AMF(프랑스 금융 감독기구)가 토큰 발행 기업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 성장과 변화에 의한 액셀플랜' 발표 -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라, 2018년 6월 유럽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 액셀러레이터 '체인 (Chain) 액셀러레이터'가 활동 개시 - 금융, 교육, e스포츠 등 여러 부문에서 활동하는 13개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중 * 동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6개월 동안 마케팅, 인사관리, 시제품 생산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음. 참가비는 월 1,200유로 - 프랑스에서 가장 발달한 블록체인 분야로 2012~2017년 VC의 11%가 Fintech에 집중됐고 2017년 한 해 동안 2억 달러 이상 투자
	경쟁동향 -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Hipay, Impak France, Kaiko, Monetrack, Origami Netwok 등이 있으며 프랑스에서 시작해 미국으로 소재지를 옮긴 Kyriba는 최근 유니콘 클럽 가입 - 정부 주도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프로그램 및 현지 기업 주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 Accenture, Paypal 등 글로벌 회사들이 경쟁 중
	진출방안 - 각종 핀테크 포럼 및 현지 스타트업 행사 참여[Fin&Tech Summit(Bordeaux), Paris Blockchain Week Summit 등] -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현지 기업과의 협업 - 현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 진출방안 모색 필요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개요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전략무역 사절단	K-Beauty 해외 전략무역 사절단	2020.3/파리
2	해외 전시회	- 프랑스 파리 춘계 텍스월드 - 프랑스 파리 추계 텍스월드 - 프랑스 파리 광학 전시회	2020.2, 2020.9/파리

세부내용

① 전략무역 사절단

- 대전, 제주, 인천, 경북 등에서 선정한 유망 화장품 기업 35개사 대상으로 프랑스 바이어와 1:1 상담기회 제공, 사후 관리, 납품계약 체결 지원

② 해외 전시회 지원

- (2월) 프랑스 파리 춘계 텍스월드, 40개사(잠정)
- (9월) 프랑스 파리 추계 텍스월드, 40개사(잠정)
- (9월) 프랑스 파리 광학 전시회, 25개사(잠정)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프랑스 지방선거	2020.3.15 ~ 22	6년마다 실시, 3개 대도시 : 파리, 리옹, 마르세유에는 각 구 (Arrondissement)별로 단체장 선출
영국 브렉시트	2019.10.31	2019.10.19 실시되는 유럽 의회 회의에서 불발 시 2020.1.31로 연기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1년 프랑스 예산 발표	2020.12. 하순(잠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가구·가구산업·공예품·의류·패션·악세사리·목재 가공·디자인·그래픽	디자인 가구·인테리어 소품·공예·생활용품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전시회 (Maison&Objet)	2020.1.17 ~ 21/파리 2020.9.4 ~ 8/파리
패션	의류·패션·악세사리	프랑스 파리 후즈넥스트 전시회 (Who's Next)	2020.1.17 ~ 20/파리
섬유원단	섬유원단·기능성 원단	프랑스 파리 텍스월드 전시회 (TEXWORLD PARIS)	2020.2.10 ~ 13/파리
섬유원단	고급 섬유원단	프랑스 파리 프르미에르 비전 전시회 (Première Vision Paris)	2020.2.11 ~ 13/파리
광학	안경·렌즈·콘택트렌즈·광학 기기	프랑스 파리 광학 및 안경 박람회 (SILMO Paris)	2020.10.2 ~ 5/파리
복합첨단산업	신소재·중간재·원자재·보조재	프랑스 파리 국제복합 및 신소재 박람회 (JEC Europe Composites Show Paris)	2020.3.3 ~ 5/파리
식품·음료	농식품 전반	프랑스 파리 국제 식품박람회(SIAL Paris)	2020.10.18 ~ 22/파리

부록

對프랑스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프랑스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프랑스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프랑스의 잠재력

- EU와 아프리카 시장 접근성
 - 54개국 600개 파트너로 구성된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 진출 기회
 - 프랑스는 역사적, 산업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불어권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 가능
- 스타트업 강국
 - 스타트업 네이션을 슬로건으로 국가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34,000m² 규모의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에 1,000여 개의 스타트업과 전 세계 액셀러레이터 26개 팀 보유
-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매력도가 높은 투자지역
 - 브렉시트로 영국 이외의 유럽에서 대안을 찾는 금융투자회사 증가
 -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에 대한 믿음 반영

* 자료 : A.T. Kearney(2019년 5월 발표)
- 가계 구매력 상승, 실업률 감소 추세로 국내 경기 긍정적
 - (구매력) 2018년 말 노란조끼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된 구매력 상승 정책의 효과가 2019년 말부터 가계소비 증가로 나타날 전망
 - (실업률) 정부의 친기업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고용상황 개선, 실업률 지속적으로 하향세 기록 중, 2017년 9.4%에서 2020년 8.4% 전망

주요국의 대(對)프랑스 경제협력 현황

- 중국, 일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와 적극적으로 다양한 협력기반 구축 중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일본	- EU와의 FTA 협정 2019.2. 발효 - 프랑스 진출 일본기업 수 약 490개, 약 74,000명의 고용 창출로 아시아 최대의 대(對)프랑스 투자국 -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얼라이언스로 자동차 산업에 긴밀한 관계, 카를로스 곤 회장 체포 구금 문제로 2019년 초반 갈등 - 프랑스 수입 시장의 약 1.0% 차지
중국	- 아시아 1위의 대(對)프랑스 무역 파트너 -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 5.2%로 6위, 2018년 이후로 미국, 영국을 앞서는 점유율 유지 - 약 700개의 중국, 홍콩 기업 프랑스 진출. 약 45,000개의 고용 창출 - EU, 2019년 중을 "경제적, 체제적 경쟁자"로 재설정 하였으나, 中-EU 협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	- 아프리카 항공운송 시장 진출 - EU-AU(아프리카연합) 간 파트너십 이행 -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자료 : GTA, Business France 자료 종합(2019년 9월 기준)

한-프랑스, 130년 넘는 역사적 관계에 비해 경제협력 적은 편

- 1886년 6월 한불 우호통상조약 체결, 1942년 2월 상호 국가승인
 -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프랑스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 한국의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 2019년 상반기 0.5%로 31위(GTA 통계 기준)
 - 지난 약 3년간의 점유율 큰 변동 없이 평균 0.5% 수준

우리나라의 연도별 프랑스 수입 시장 점유율 및 순위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한국	0.48(30위)	0.46(31위)	0.53(30위)	0.51(31위)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 한국의 대(對)프랑스 수출액은 유럽 경제 3강 중 가장 낮은 비중

한-대(對)EU 경제 3강 수출액 및 수출액 비중

(단위 : 백만 불, %)

국 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독일	6,220(11.8)	6,442(13.0)	8,483(14.8)	9,372(15.0)	4,450(16.4)
영국	7,390(14.0)	6,288(12.7)	8,121(14.2)	6,385(10.0)	3,309(12.0)
프랑스	2,621(4.9)	2,542(5.0)	3,114(5.2)	3,540(5.8)	1,675(6.0)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 양국 산업의 협력 강화 여지가 충분하며 교역 확대 잠재력 큰 편
 - 양국 중소·스타트업 기업 중심의 창조적 인재 및 일자리 교류 강화 필요

나. 한-프랑스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프랑스 정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산업 육성정책(Industrie du futur) 지속적으로 추진 중

- 2015년 5월 프랑스 경제 부흥을 위해 국제 시장 수요, 성장 잠재력,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산업 등을 고려하여 9대 분야 선정
- 제조 공정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중이며 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일자리 확보를 추구
- 주요 과제는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최소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9대 미래 산업

핵심산업	세부내용
에너지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도시	스마트그리드, 수자원관리,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목재산업
친환경 이동수단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고효율 연비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미래형 교통수단	TGV, 친환경 선박, 전기항공기 및 차세대 항공기, 드론
미래형 의료	의료바이오기술, 차세대 의료기기
데이터 경제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사물인터넷, 로봇산업, 증강현실, 스마트 섬유
디지털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나노전자기술, 시스템내장 소프트웨어, 전기추진위성
미래형 식품	기능형 식품, 미래형 식품포장, 식품 안전 및 식품 냉동보관기술

자료 : 프랑스 경제산업디지털부, 미래투자총괄위원회(CGI)(2015년 5월 발표)

한국, 8대 핵심 선도 사업 추진 중

- 2017년 12월 발표된 8대 핵심 선도 사업
 -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신산업 기반 정비, 일자리 창출 유도 목표

	우리나라 8대 핵심 선도 사업
1	초연결 지능화 - 5G 상용화 -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확립
2	스마트 공장 -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 업종, 규모별 시범공장 구축(~2022.)
3	스마트 팜 -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4	핀테크 - 규제 샌드박스 확립

5	에너지 신사업 - 공공기관 부지 등 활용,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6	스마트 시티 - 기술개발, 실증 지원 -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2022.)
7	드론 - 구매수요 발굴 - 실증 인프라 구축(비행시험장 확충)
8	자율주행차 개발 - 실증 인프라 확충

자료 : 정부부처 발표자료 종합(2019년 9월 기준)

한-프랑스 경험개발 가능한 미래 산업

- 프랑스의 9대 미래 산업과 우리나라의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기반,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산업 적극 발굴 필요
 - 프랑스의 수요산업과 한국의 전략산업을 연계해 고민

프랑스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우선사업		구체적인 역량
ICT	자동차, 자동차부품	■ 전통적 ICT 강국 ■ 제조기술, 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자동차, 부품, 배터리 생산 강국 ■ 높은 교육수준의 전문 인력 및 기술 보유 ■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연계 소비재 경쟁력 증가
소비재	보건, 의료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미래로 가는 한국-프랑스 협력정책

① 4차 산업 연계 협력사업

- 양국은 2004년 수립된 ‘한-불 21세기 포괄적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공동대응에 합의(2018년 10월 한-불 정상회담)
 - 과학기술, 신산업,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 및 협력사업 확대 계획
 - 인구 고령화, 장애인 및 신체이동제한, 외국어 소통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미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공적지원, 기업 간 파트너십 등 지원 함께 모색
-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인재·일자리 발굴 협력 확대
 - 제조업이 발달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5개국 중심으로 혁신 정책 수립 확대 중, 산업혁신 본격화
 - * 독일(Industrie4.0), 프랑스(Industrie du Futur), 영국(4IR), 이탈리아(Fabbrica Intelligente), 스페인(Industria Conectada 4.0), 스웨덴(Produktion2030)
 -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으로 핵심 기술 분야 공동 R&D 및 우수인재 교류 관련 협업 가능성 모색 필요
 - * Aquitaine Robotics : 회원사 89개, 미래형 공장·로봇기술 공동연구 및 상용화 모색
 - * Centre de Saclay : 회원사 50개, 미래형 에너지, 나노기술, 로봇틱스 연구
 - 한-불 창업기업 대상, 상대국 견학 프로그램 및 양국 산학연관 파트너가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확대 협의
 - * 프랑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Tech), 스테이션 F(Station F)
- 한-프랑스 신산업정책
 - 친환경자동차, 항공, IT, 제약, 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
 -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 가능한 자동차부품, 디지털 의료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품목의 프랑스 진출 협력사업 강화
 - * (자동차부품)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랑스 주요 자동차 제조사 GVC 진입 맞춤형 사업 추진
 -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추진하여 IT 대형 유통망과 국내 IT 기업 간 일대일 상담회 지원

한-프랑스 신산업 주요 협력 프로젝트(2017~2018년)

- ① 한국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과 프랑스 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위치정보 서비스 기기개발**(양국 정부 3년간 약 30억 원 지원)
- 참여기관 : (韓) 아모텍, 메디코넥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佛) Sigfox
- ② 자율주행차용 **멀티채널 V2X 통신 데이터 처리엔진** 양국 공동 기술개발(양국 정부 3년간 약 30억 원 지원)
- 참여기관 : (韓) 웨이티즈, 일마일, 경북대학교, (佛) Faar Industry, ECE Paris
- ③ 한국의 광학기술 및 제조기술과 프랑스의 고성능 micro-OLED 패널을 활용한 **산업용 증강현실 기기 개발**(2018년 공동 R&D 착수 합의)
- 참여기관 : (韓) 테크웍스플러스, (佛) MicroOLED

② 기후변화 및 과학기술 협력사업

- 프랑스 정부, 저탄소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전부터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목표안에 부합하는 기본법인 저탄소전략 수립
 - * 프랑스 저탄소전략 :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30년까지 90년 대비 40% 감축) 및 2050년까지 75% 감축 목표
- 한-프랑스 기업 간 친환경자동차 기술 공동개발 확대 및 자동차 연관 기업 간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노력 강구
 - 한-프랑스 기업 간 자율주행·친환경자동차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 전자, 반도체, IT, S/W 등 연관분야 포함한 협력 확대 지원 필요
- 한-프랑스 과학기술협력 액션플랜
 -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액션플랜 마련(2018년 10월 한-프랑스 정상회담)
 - 정책 교류 협력, 학생 및 연구자 교류, 양국 공동연구 사업 신설 및 EU 다자간 공동연구 장려, 국제 공동연구 조직 협력 확대
 - 우주, 기후변화,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소재·나노,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과학 문화 확산 추진

과학기술협력 액션플랜 내용

- **(정책협력)** 과기공동위, 원자력공동위를 통한 정책 교류 지속, 차기공동위 2020년 개최
- **(학생·연구자 교류)** 과기특성화대학 협력 장려, 교환학생·섬머스쿨 프로그램 진흥, 2019년 2차 고등교육·연구·혁신의 만남 행사 개최
- **(국제공동연구)** 양자, 다자 차원의 연구협력, 국제공동연구실 신설 장려
- **(우주)** 2019년 9월 3차 한불우주포럼 개최, CNES-항우연 연구자교류프로그램 신설, **(기후변화)** 기후변화 기술협력 MoU 체결 노력, **(인공지능)**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응용분야 협력, 공동연구사업 신설, 양국 연구기관의 공동 세미나 개최 장려, **(신소재·나노)** UMI급 국제공동연구실 개소 만족, **(생명과학)**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파스퇴르연구소 감염병 분야 협력 장려
- **(한림원)** 양국 과학한림원간 정기적 접촉 유도, 호혜적 연구 분야 발굴
- **(과학 대중화)** 과학 전시회 개최 모색

③ 청년창업 지원협력 확대

- 프랑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활용, 청년들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 한류 문화는 프랑스에서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
 - K-pop,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 소비재와 젊은 층 문화에 관심 증폭
 -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한국 청년들이 작은 자본으로도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체류 자격과 사업자 등록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양국 정부 간 협력 필요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협력

① IT 분야 협력

정책 현황

-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및 세계 시장 진출지원 강화
 - 프랑스 정부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육성 지원책인 프렌치 테크 프로그램 마련 및 1인 기업 창업지원 정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강화
 - * 2017년 프랑스 내 창업기업 59만 개로 유럽 1위 기록
 - * 프랑스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1인 창업자를 내며 성공적으로 평가됨
 - * 프랑스 디지털 기업 및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1,500만 유로 정부 지원
- R&D 감세정책을 통한 기술개발 분야 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
 - 프랑스 기업 대상 기술개발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에 대한 감세혜택*
 - * 연구개발 비용에 한해 최대 30% 감세(1억 유로 한도)

산업 현황

- 프랑스 사물인터넷 산업,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기록
 - Montaigne Institute와 A.T. Kearney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IoT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152억 유로에 달할 전망
 - 2017년 기준 IoT 대표 디바이스인 스마트워치의 연간 프랑스 판매량 52만 개 기록
 - * 2026년 800억 개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을 목표로 사물인터넷 환경 조성 확대
- 앙제(Anger)시에 사물인터넷 산업 전문 클러스터 형성
 - 프랑스는 사물인터넷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무실 제공,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전문 클러스터 설립

- 2017년도 부이그 텔레콤(Bouygues)은 IoT 기기의 사물 간 네트워크 연결 및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들을 수집,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
 - IoT 전문 자회사 ‘옵제니우스(Objenious)’ 런칭 1년 만에 4천 개의 안테나를 확보, 프랑스 3만여 행정구역 및 인구의 93% 이상을 커버하는 네트워크 보유

진출 현황

- 파리 외국인 투자 분야 중,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가 1위 기록
 - 적극적인 외국인 스타트업 인재 유치로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 투자, 전년 대비 2017년 기준 184건(35%) 증가, 전체의 14% 차지
- 삼성전자, 파리에 세 번째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 조성 예정
 - 파리 AI 센터 연구 인력 2019년 내 50명 이상 확대 계획
- 네이버(Naver),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진출 가속화
 - 2016년 12월, 플뢰르 팰랭 전 프랑스 디지털장관이 설립한 VC 코렐리아(Korelya)에 약 1억 유로의 펀드 출자
 - 2017년 AI 연구소인 유럽 제록스리서치센터를 인수하며 ‘네이버랩스 유럽’으로 사명을 변경 및 프랑스 현지법인 설립
 - 유럽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 F(Station F)에 스타트업 육성 공간(약 80석 규모) ‘스페이스 그린’ 마련
 - 2017년 10월, 코렐리아에 1억 유로 추가 출자 및 파트너십 체결
- 한-프랑스 인공지능 공동연구사업
 - 한국과 프랑스는 신기술 공동개발 등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자율주행차, 나노, 디지털 헬스 영역에 한정되어 AI 연구개발 영역으로 확대 필요
 - * 한-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총 3차례의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 개최(2014년 서울, 2015년 파리, 2016년 서울 개최)
 - 향후 AI 자체에 대한 연구 공유뿐만 아니라, AI 연구 거점화 등 프랑스의 전략 모델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
 - 프랑스의 연구 플랫폼 등 연구거점과 한국에 구축될 연구거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양국 AI 공동개발의 시너지 창출 모색 필요
- 주요 수입품목
 - 프랑스 상위 100대 수입품목 중 대(對)한국 IT 수입품목은 손목시계, 무선전화기, 스마트 가전기기, 광케이블, 모니터 프로젝트 등

- 반도체는 프랑스의 한국 반도체 생산 공장 M&A형 투자로 인해 수출입 통계에서 제외, 대한(對韓) 수입 현황표에서 점차 감소품목으로 집계되는 추세

프랑스 상위 100대 수입품목 중 IT 품목 대(對)한국 수입 현황

품목명	HS (4단위)	2018년 수입 순위		2018년 수입 증감률(%)	
		전 세계	제3국 (EU 제외)	대(對)한국	대(對) 전 세계
손목시계·휴대용시계(스톱워치 포함 및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	9101	31	15	292.7	1.4
무선전화기	8517	29	13	-67.1	-0.6
그 밖의 전자기기	8543	20	8	-1.8	-9.9
절연전선·케이블	8544	17	7	166.2	15.2
모니터, 프로젝터	8528	21	9	27.8	-14.5
냉장고·냉동고	8418	13	3	-24.1	7.1
전자집적회로	8542	9	5	-10.6	0.9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반도체디바이스, 광광성 반도체디바이스	8541	9	5	-26.2	2.0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경험방안

- 한-프랑스 기업 간 공동기술 협력을 통한 협력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양국 스타트업과 국내 중견·대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프랑스 스타트업 자금 조달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예) 국내 삼성전자의 프랑스 시그폭스 지분투자 및 기술협력
 - 양국 현지 유망 스타트업 인수를 위한 M&A형 진출 지원 상호협력

② 자동차,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 르노 및 푸조 그룹의 주도로 중 소형 승용차 및 경화물차 생산에 주력, 저가 승용차 생산 세계 1위
 - 탄소배출규제 강화로 인해 최근 친환경차량 인기
- 디젤게이트 이후, 경유엔진 생산라인을 가솔린 엔진, 또는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전환하는 추세
- 미래차 개발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산업 변화 중
 - 기존의 내연기관, 변속기 등 하드웨어에서 전동기, 자율주행 플랫폼 등 커넥티비티 솔루션으로 전환
 - 영업과 R&D 팀의 복합마케팅 추진, 철저한 품질관리와 레퍼런스 형성 중요

진출 현황

- (2018년) 프랑스 내 외국산 자동차 판매량 108만 대, 전년 대비 2.4% 증가
 - 프랑스 전체 자동차 시장의 42.6% 점유

2018년 프랑스 내 외국브랜드 자동차 판매 현황

(단위 : 천 대, %)

원산지	독 일	일 본	미 국	이탈리아	한 국
판매량	417	216	83	100	78
점유율	19.2	9.9	3.8	4.6	3.5

자료 :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2019년 9월 기준)

- EU로 직수출되는 국산 차량은 총 약 40만 대이며, 체코(현대), 슬로바키아(기아) 등 해외 생산기지 생산분의 대(對)EU 수출 비중이 증가 추세
 - * 현대차 : 체코 노소비체 지역에 연간 33만 대 규모의 생산공장 가동 중(2008년~)
 - * 기아차 : 슬로바키아 질리아 지역에 연간 33만 대 규모의 생산공장 가동 중(2006년~)

경협방안

-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부품, 경량화 소재분야 공동 기술개발 협력 필요
 - 프랑스, 202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판매 목표로 전기차 기술개발 주력
 - * 프랑스 정부, 전기차 구매 시 인센티브 제공 및 전기차 개발 투자자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전기차 구매 및 충전설비 개발 지원
 -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Renault)는 르노-삼성을 통해 LG전자 및 SK텔레콤과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공동 개발 추진 중
 - IT 응용기술 중심의 설비구조 고도화, 소재경량화 관련 구체적 기술협력 수요 발굴 및 우리 부품 기업 연결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필요

3 소비자

산업 현황

- 2020년 프랑스 가계 구매력 상승, 실업률 감소로 국내 경기 긍정적 전망
 - 2018년 말 노란조끼 시위에 대한 대담으로 마련된 구매력 상승 정책의 효과가 2019년 말부터 가계소비 증가로 나타날 전망
- 프랑스 포함한 유럽 전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 2018년 기준 926억 유로 규모, 최근 3년간 평균 13% 증가율로 성장 중
- 프랑스 4대 소비키워드(웰니스, 친환경, 혁신성, 실용성)에 맞춘 차별화된 마케팅 중요성 대두
 - * 화장품 전문 유통바이어 M사 인터뷰 中 : “한국제품의 천연성분 고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 세련된 패키징을 선호함”

진출 현황

- 방송·음악 등 한류의 유럽 확산으로 인한 한류 연관 소비재의 수출 증가
 - － 화장품, 식품류, 생활용품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국산 소비재 인기
 - * 한국 기업 VT 코스메틱,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한 향수 출시해 세포라(Sephora) 입점
 - * 세포라(Sephora), 모노프리(Monoprix)내 'K-Beauty' 코너 상설 운영
 - * 피카르(Picard), 인터마르쉐(Intermarche) 등에서 PB상품으로 냉동비빔밥, 불고기 출시
- 한국 기업 진출 현황

품목	기업명	진출방식	프랑스	기타 유럽
화장품	아미코스메틱	수출	Marionnaud 입점	(스페인) El Corte Ingles 입점
화장품	에스엠생명과학(주)	수출	Marionnaud 입점	(체코) Fann 입점
화장품	(주)퍼스트마켓	수출, 현지진출	Galerie Lafayette 매장오픈	(스페인) Bodybell 입점
패션 잡화	태진인터네셔널	현지진출	Galerie Lafayette '루이까또즈' 매장오픈	
패션 잡화	(주)난다	M&A	L'Oreal에 브랜드 '스타일난다' 매각	

경험방안

- 화장품의 경우,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위해 프랑스 내 연구기관을 설립해 화장품 시장 공략
- 주요 품목별 유망 전시회, 온라인 유통채널 활용 진출 지원 사업 참가독려
 - － 화장품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인프라를 제공해 신규 바이어 발굴, 제품 광고, 프랑스어 카탈로그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 지원
 - － 바이어 발굴, 시장성파악, 제품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 * 전시회 참가기업의 30~50%가 유럽 이외 출신, 유럽과 제3국 진출 플랫폼으로 기능
- 인증확보, 현지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한 시장접근 방법 홍보
 - － CE(공산품), LFGB(조리용기구, 부엌용품), RoHS(전자제품), CPNP등록(화장품)
 - － 현지 취향에 맞는 디자인, 브랜드이밍, 유통 네트워크 보유한 분야별 전문 에이전트 활용
 - － 국내 소비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비재 GP사업 및 M&A추진
 - * 글로벌 패션·뷰티업체 대상 GP사업 확대 추진
 - * 현지 유망 브랜드 인수를 위한 M&A형 진출 지원사업 고려

4 보건, 의료

산업 현황

-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증가, 고급의료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증가

- 스마트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화 진행 중
 - 스마트 진료장비 등 신기술 제품이 새로운 수요 창출, 향후 해당 품목 수요 증가세 기대
- 유럽 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 수는 약 25,000개로 주로 독일, 영국,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에 집중
 - 의약품의 경우 국가별 시장 비중은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순
 - * 자료 : GTA
- 의료비 지출 대비 효과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주요 ICT 기술을 융합한 의료서비스로 미래 산업 공략

진출 현황

- 한국의 대(對)EU 총수출 중 의료기기가 1.0% 차지
 - 대(對)EU 주요 수출국(HS 2단위 기준) : 1위 슬로바키아, 2위 폴란드, 3위 독일, 9위 프랑스
 - 주 수출 의료기기 : 의료용 영상기기, 내과·외과·치과기기, 엑스레이기기, 진단기기, 정형외과용 치료기구 등
- 주요 한국진출기업 현황
 - (의료기기) 레본슨
 - (의약품)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 * 2016년 EU 판매허가 : 삼성바이오에피스(베네팔리 : 관절염 치료제, 플릭사비 : 자가면역질환치료제)
 - * 2017년 EU 판매허가 : 셀트리온社(트룩시마 : 혈액암 치료제), 삼성바이오에피스社(루수두나 : 당뇨병 치료제, 임랄디 :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경험방안

- 양국 간 스타트업 육성, 첨단의료분야 공동연구 등으로 상생의 장 마련
- 전시회 플랫폼 활용 협업사업 확대 추진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 활용 유럽 공동바이어 유치 강화
-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 조기 진출 지원 사업 마련
 - 많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기간 도래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지속 전망
 - * (예) 국내 셀트리온, 류마티스 치료제 유럽 출시(2015년)
 - EU의 인도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산 의약품의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 EU는 인도 임상시험수탁기관 GVK바이오사이언스(GVK Biosciences)가 행한 시험의 신뢰성 문제시하며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700여 종 판매 금지 조치

5 항공우주

(산업 현황) 세계 2위 및 유럽 1위의 항공기 및 우주장비 생산국

○ 시장규모

- 프랑스 우주항공산업협회(GIFAS)에 따르면, 프랑스의 항공기 및 항공 부품산업 시장은 2017년 255억 달러(226억 유로)로 2012년 이래 5년간 연평균 1.5%씩 증가
- 완제기 및 항공 부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약 1.7%씩 성장해 2021년 273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 프랑스 우주항공아카데미(AAE), 항공 및 우주비행협회(A3F)에 따르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는 프랑스의 민간 드론 시장규모는 2020년 1억7900만 유로에 달해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며 유럽 시장의 16.3%를 차지할 전망

2020년 분야별 프랑스 및 유럽 민간 드론 시장 전망

(단위 : %, 백만 유로)

적용 분야	구성비	프랑스	유럽
인프라 구조·네트워크	35	62	385
토목공사	15	27	165
광업 및 석유산업	15	27	165
농업, 임업, 어업	5	9	55
시민 안전	5	9	55
화학, 생물학 또는 핵 안전	5	9	55
환경, 기상	5	9	55
통신	5	9	55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5	9	55
영화, 사진, 광고, 여가, 소통	5	9	55
전체	100	179	1,100

자료 : 프랑스 경제부 기업국, 수출용 민간 드론산업 개발 전망 보고서(Perspectives de développement de la filière des drones civils à l'export)(2019년 9월 기준)

(산업 현황) 프랑스 항공우주기업, 역외 아웃소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

-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활동분포 : 항공산업 80%, 방위산업 12%, 우주산업 8%
- 프랑스 항공우주기업들은 제품의 경량화, 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및 현지 생산제휴 등 다양한 정책으로 세계경쟁력 제고
 - * 2015년 10월, 미국조립공장에서 에어버스 항공기 조립 및 현지 시장 공략 추진
 - * 갈수록 빨라지는 생산속도를 감안하여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에어버스 생산공장을 프랑스 툴루즈로 U턴할 계획

(진출 현황) 신흥국의 항공기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증가

- 주요 진출 국가 동향
 - 중국 등 기타 신흥 시장의 항공기 원자재 및 부품 공급 기업 증가추세
 - 프랑스 주요 항공기 제조사의 항공기 부품 아웃소싱 협력 강화로 항공기 부품 역외 수입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18년 프랑스 항공기 및 부품 수입 시장 국가별 점유율

(단위 : %)

원산지	독일	미국	영국	스페인	모로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한국
점유율	51.9	14.7	10.7	5.7	2.4	1.6	1.5	0.4
순위	1	2	3	4	5	6	7	18

자료 : GTA(2019년 9월 기준)

(경협방안) 역외 아웃소싱 증가세 활용, 복합형 사업 추진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 현재 초보적인 한국 항공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 촉진 필요
 - 마케팅 플랫폼 GVC 진입지원 맞춤형 사업 확대
 - R&D 협력, 합작투자 발굴 지원
- 유럽 내 항공기업 M&A 물색 통한 현지진출 고려 필요
 - Airbus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생산 제품군을 단순화·전문화 추진 중
-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제3의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로 공동 진출 기회
 - 이미 진출해 있는 프랑스 현지 기업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을 제휴함으로써 제3국으로 공동 진출 및 기술 경쟁력 획득

⑥ 문화 콘텐츠

산업 현황

- 전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며, 유럽은 약 32%인 7천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
 -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높아, 2015년 한 해 유럽 내에만 770만 개 파생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
 - 새로운 콘텐츠 유통판로로 떠오르는 온라인 콘텐츠 배급기업들의 최근 3년 새 성장율이 평균 49%에 달함
 - * 키스타터 81%, 넷플릭스 61%, 아마존 44%, 페이스북 39%, 구글 18% 등
 - * 자료 : UNESCO, EY Consulting(2015년 기준)

진출 현황

- 온라인·모바일 신매체를 통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접촉 기회 증가
 - 프랑스의 지속적인 통신망 개선정책 및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K-drama, K-POP 콘텐츠 등을 접할 기회가 지속 확대되는 중
 - 이러한 K 콘텐츠의 인기가 연계 소비재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
 - * 자료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한류보고서(2018년)
- 넷플릭스(Netflix)는 2018년 한 해 콘텐츠 제작투자에만 80억 불을 할애할 예정임을 밝혀 이를 적극 활용한 진출 사례가 늘고 있음
 - 190여 개국에 콘텐츠 진출이 단박에 가능, 캐릭터 및 MD 상품 사업에도 유리
- 2018년 기준 국내 콘텐츠 기업 진출 현황

분류	한국 기업	프랑스(해외) 기업	진출형태
방영	쌈지	Method Animation	(2015년)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방영
방영	하얀오리	Millimages	(2016년)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방영
방영	로이비주얼	Canal +	(2012년~현재) 〈로보카폴리〉 방영
합작	제이박스	2Minutes	(2018년)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합의
합작·방영	엔팜	Netflix	(2018년) 넷플릭스 전액투자 애니 佛 방영 * 작품명 : 토비와 테리
합작·방영	오로라월드	Netflix	(2018년) 넷플릭스 일부 투자 애니 佛 방영 예정 * 작품명 : 유후와 친구들

경험방안

- 한-EU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수출판로 확대
 - 국산 애니메이션 작품 피칭 및 투자유치, 판권 수출 상담지원
 - * (보르도) 카툰무비 상담회, (뮌헨) 카툰포럼 상담회 등
 -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투자배급사 초청 수요 발굴형 지원 사업 추진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문화 콘텐츠 진출사업 강화
 - *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협력, 오디오비주얼 및 애니메이션 전문 전시회 한국관 공동운영 등

다. [B2G] 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분석을 통한 협력 산업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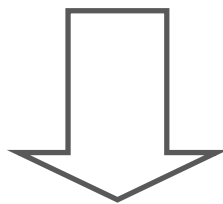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목표로 세계 유엔 회원 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17가지 목표와 169가지 세부 목표를 의미
 - 2016~2030년까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합의한 내용

- 경제, 사회의 양극화 현상, 사회적 불평등 심화, 환경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함
-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
- 한-프랑스 협력 가능한 산업 도출 방법
 - 한국과 프랑스의 SDG 점수를 비교해 평균 점수 이상의 차이를 가진 항목 추출
 - 해당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연관 산업을 협력 산업으로 지정

2019년 양국 SDG 점수 비교

SDG 점수차이	SDG Index and Dashboards 2019				
NO.	내용	프랑스	한국	한국-프랑스차이	절대값
SDG1	빈곤퇴치	99.5	99	-0.5	0.5
SDG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66.0	77.9	11.9	11.9
SDG3	보건증진	94.3	92.4	-1.9	1.9
SDG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97.4	95.8	-1.6	1.6
SDG5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	86.5	63.9	-22.6	22.6
SDG6	물과 위생	87.9	81.5	-6.4	6.4
SDG7	에너지	97.0	92.5	-4.5	4.5
SDG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78.1	86.2	8.1	8.1
SDG9	인프라와 산업화	73.6	83.7	10.1	10.1
SDG10	불평등 해소	85.6	86.5	0.9	0.9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87.0	80.3	-6.7	6.7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진	53.4	63.5	10.1	10.1
SDG13	기후변화 대응	86.4	87.7	1.3	1.3
SDG14	해양자원 및 생태계	64.2	54.8	-9.4	9.4
SDG15	육생생태계	76.7	54.8	-21.9	21.9
SDG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76.6	57.2	-19.4	19.4
SDG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75.1	75.4	0.3	0.3
평균		81.4	78.4	-3.0	8
절대값의 평균		평균 : 8			

자료 : SDG Index and Dashboards 2019, Bertelsmann Stiftung.(2019년 9월 기준)



평균 이상의 차이를 가진 SDG

SDG	우위국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SDG2)	한국
인프라와 산업화(SDG9)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증진(SDG12)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SDG5)	프랑스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SDG8)	
해양자원 및 생태계(SDG14)	
육생생태계(SDG15)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SDG16)	

○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필요

- 프랑스가 평균 이상의 점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목표 5개와 한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목표 3개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 산업 도출
- 프랑스가 한국과 비교해 열위에 있는 SDG 지표들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담당 연구원, 발명가의 거주 국가 내 PCT* 특허 출원 수, 전자기기폐기물 등의 항목
- 이러한 결과로 도출해 볼 수 있는 연관 협력 산업들에는 건설업, 연구개발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등
 - * Patent Cooperation Treaty :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은 금전적, 시간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체결한 국제 조약
- 한국이 프랑스와 비교해 열위에 있는 SDG 지표는 여성 국회의원비중, 남녀 임금 격차, 도심 지역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레드리스트 종의 생존, 수입된 생물 다양성 영향, 국제무상 재정지원 등의 항목
- 이러한 결과로 도출해 볼 수 있는 연관 협력 산업에는 스마트 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안 산업 등

협력방안

- 분야의 특수성으로 정부 차원의 대중소 동반진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 인력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업 지원 필요
- ESS 및 전기차 배터리 사업
 - 원자력 의존도가 큰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변화로 프랑스 정부, 대규모 ESS R&D 투자 및 배터리 시장 진출 활성화 계획
 - 프랑스 국내 ESS 시장의 투자 및 운영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산업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 추진 필요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양국 인력 교류 현황

- 한국-프랑스 간의 관광객 교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프랑스 내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확대될 전망
- 2015년 이후 한-프랑스 관광객 수 현황

한국 방문 프랑스 관광객 수			프랑스 방문 한국 관광객 수		
연도	방문객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연도	방문객수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15년	83,832	4.10%	2015년	255,000	-
2016년	91,562	9.20%	2016년	450,000	76%
2017년	91,562	0.90%	2017년	585,556	30%
2018년	100,096	8.40%	2018년	-	-

자료 : 한국관광공사(좌), DGE(우, 프랑스 경제재정부기업총국)(2019년 9월 기준)

- 한국 방문 프랑스 관광객 수는 매 해 꾸준히 늘어, 2018년 총 10만여 명의 프랑스 방문객 유치
 - * 2015년 이후 매 해 평균 5.7% 증가
- 프랑스 방문 한국 관광객 수 또한 매 해 늘고 있는 추세로 2017년 기준 약 58만 5,000여 명이 방문

상생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방안

-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프랑스 한국문화원, 2019년 가을 한국관광공사 및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파리지 중심부인 8구 지역으로 확장 이전, '파리 코리아 센터'로 새롭게 개원할 계획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2020년 주요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기간/장소	유관기관
〈전시〉 한국의 색 : 때깔	- 국립 민속박물관과 연계, 한국 전통색을 주제로 전통에서 현대까지의 공예 및 예술품 전시	2019.11.20 ~ 2020.2월 초순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리얼 DMZ 프로젝트	-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동시대 미술 프로젝트 ※ 동 전시는 해외 순회 전시로, 2019년 주영한국문화원(런던 소재)에서 진행(2019.10 ~ 12월) 후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및 파리 미술기관에서 동시 개최	2020.3월 초중순 ~ 5월 중순	외부문화예술기관, 주영국문화원, 프랑스미술기관
〈전시〉 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 한글전시 프로젝트	- 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 한글박물관 해외전시 프로젝트로 한글 관련 특정 테마를 정해 현대미술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2020.9 ~ 11월 말/ 파리 코리아센터	국립한글박물관

사업명	사업내용	기간/장소	유관기관
〈전시〉 라메르에엘 전시	- 동해와 독도의 풍광을 주제로 한 '한국의 풍경 바다와 섬' 특별전(동양화, 한국화 약 25명의 작가 참여)	2020.10월 중순 ~ 11월 초순	(사)라메르에엘
〈공연〉 문화원 공모 공연 Jeune Talents	- 프랑스 혹은 유럽 내 고등음악학교 재학생 혹은 젊은 연주자 발굴 프로그램(장르 무관)	연중(3회)/ 파리 코리아센터	파리뮤직포럼
〈공연〉 프랑스 기관 협력공연	- 타 문화원과 연계 사업으로 아티스트 유럽 투어 연계 - 현지 유명 공연 페스티벌 등 외부기관 및 협회와 연계 공연 개최 및 지원	연중/ 외부문화예술기관	센생드니국제무용제, 안로르국제무용제, 서울밤 페스티벌, 앵발리드 음악제
〈축제〉 프랑스 지역 한국문화축제	- 프랑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류 및 한국문화 소개행사 - 현지 시청, 공공기관 및 예술가 등과의 협업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종합행사 개최 · 제8회 낭트 한국의 봄 축제(5월 중순) · 제7회 노르망디 지역 코리아 라이브(8월 중) · 제4회 라로셀 한국문화축제(10월 중) · 제6회 몽펠리에 코레디씨 축제(11월 중)	연중/ 해당지역 문화예술기관	낭트한국문화의봄협회, 노리단 사회적기업, Korea Live 조직위원회, 너름새 한국문화협회, 몽펠리에 코레디씨 조직위원회
〈축제〉 드라마 파티	- 현지 한류 팬클럽과 협력, 파리 및 지방 3개 도시 (낭트, 낭시, 렌느)에서 한류 붐을 선도한 한국 드라마 상영 및 한국문화소개 부대 행사 진행	2020.10 ~ 11월/ 파리 코리아센터 및 해당지역 행사장	드라마파시옹, 봉주르코레(파리), 코레낭트(낭트), 구아바라(낭시), 코리아브레즈(렌느), 드라마파시옹
〈문화 행사〉 컨퍼런스, 작가와의 만남, 아틀리에 및 교육프로그램	- 현지 출판사와 한국의 밤 개최(연중 2~3회 예정) - 영화제 및 지역축제 연계 감독과의 만남, 마스터 클래스 진행 등 - '한글' 특별전 연계 컨퍼런스 및 아틀리에 개최	연중/ 파리 코리아센터 및 외부 행사장	한국문학번역원, 현지 출판사 및 영화제
〈스포츠〉 태권도 사업 및 제9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	- 프랑스태권도협회와 협력, 프랑스 11개 권역 30개 태권도 클럽 순회방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반과정, 사범과정, 심판과정 등 900여 명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제9회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연중 및 2020.5.16/ 외부 경기장	프랑스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문화 행사〉 제4회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 스페셜 고궁&K-food 아카데미 한식 교육	- 한식을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의 제4회 테마로 한국의 고궁을 선정, 한식과 관광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 덕수궁 프로젝트 전시 · 한식 문화교육 및 컨퍼런스 · 파리 시내 외부 광장 복합 문화 행사 · K-beauty 연계 행사 · 궁중 문화 소개 영화 및 드라마 상영회	2020.5월 중/ 파리 코리아센터 및 외부 행사장	한국관광공사, 프랑스 르코르도블루
〈문화 행사〉 K-Pop 아카데미, K-Pop 콘테스트	- K-Pop 아카데미 : K-Pop 댄스와 노래 전문 강사 들을 초청 교육 프로그램 진행. 총 3주간 댄스, 노래, 뷰티 수업을 통해 현지 젊은이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K-Pop 콘테스트 : K-Pop 노래 및 커버댄스에	2020.6월 말 ~ 7월 초/ 파리 코리아센터 및 외부 행사장	-

사업명	사업내용	기간/장소	유관기관
	대한 1차 영상물 심사 후, 예선을 통과한 10여 팀을 대상으로 K-Pop 콘테스트 개최 및 시상(춤, 노래 각각 대상, 특별상 등 3개상 수여)		
〈문화 행사〉 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 한글 연계 특별 사업	- 국립 한글박물관과 연계, 세종의 애민정신과 혁신적 발상을 주제로 한 전시 개최. 국립한글박물관의 특화 콘텐츠로 한글의 이미지성을 주제로 전시 및 컨퍼런스, 체험행사 등 한글 관련 부대행사 개최	2020.10 ~ 12월/ 파리 코리아센터	국립한글박물관
〈문화 행사〉 제15회 파리한국영화제	- 지난 10년간 한국영화 장편 260편, 단편 245편 등 총 505편이 넘는 한국 영화를 프랑스 현지에 소개해 온 영화제	2020.10월 말	한불영상교류협회, 삼성, 기아,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EPS 여행사 등 후원

자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2019년 9월 기준)

○ 양국 교육기관 간 MOU를 통해 학생 교류 및 한국어 강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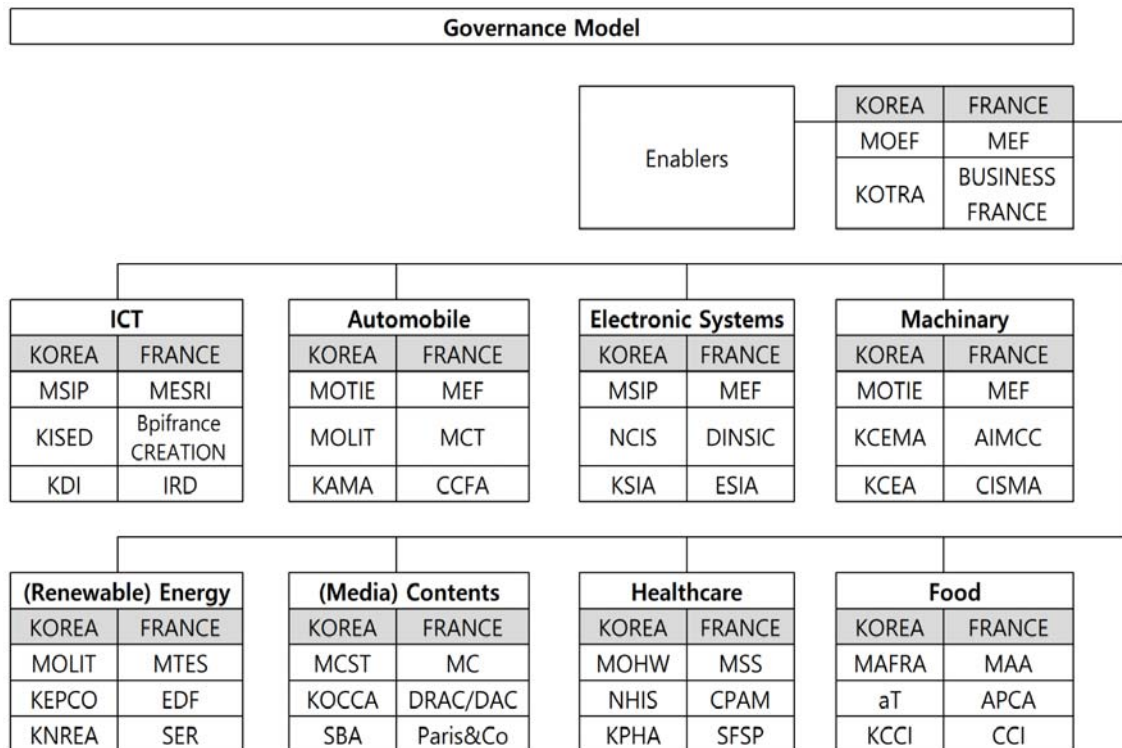
-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15년 9월 한국어를 제1 및 제2 외국어로 프랑스 교육 과정에 편입시켜 프랑스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 회화 시험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
- 이에 2017년 9월부터 프랑스에서 한국어 국제학과 최초 개설

Ⅲ. 향후 對프랑스 K패키지 실행체계(안)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제안

-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한 협력 모색
 - － 양국의 기획재정부와 무역투자진흥기관이 필두가 되는 경영체계
 - － 양국 간 진출 가능성이 높은 8가지 주요 산업을 선정해 각 산업별로 주요 부처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 수립
-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체계 가동
 - － 산업별로 양국의 담당부처를 통해 분야별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한-프랑스 경제협력위원회 구성(예시)



Korea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SI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O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HW Ministry of Health&Welfare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Energy
KISED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NCIS National Computing and Information Service
KSIA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KCEMA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Maintenance Association
KCEA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Association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SBA Seoul Business Agency
aT Korea agro-fisheries&food trade corporation

France

AIMCC French Association of Construction Products Industries
APCA The French Chamber of Agriculture[Chambres d'agriculture France]
Bpi france Creation French investment bank[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BUSINESS FRANCE French Government agency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CCFA The French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CCI The frenc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Chambres de commerce et d'industrie]
CISMA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for construction, infrastructures and metallurgical industries and handling
CPAM the local Health Insurance Funds[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DINSIC Inter-Ministerial Directorate for Digital Affairs and St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DRAC/DAC Regional Directorate of Cultural Affairs/Paris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Direction des affaires culturelles de la Ville de Paris]
EDF Electricity of France[Électricité de France]
ESIA European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MA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MC Ministry of Culture
M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SS Ministry for Solidarity and Health
MCT Ministry of Territorial Cohesion and Relations with Local Authorities
MTES Ministry for the Ecological and Inclusive Transition

Paris&Co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the Paris Metropolitan Area

SER French Renewable Energy Association[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SFSP The French Public Health Agency[Société Française de Santé Publique]

IRD The 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Development[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eveloppement]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세화	과장	파리무역관	+33-1 5535 8862	worldpeace@kotra.or.kr
2	곽미성	대리	파리무역관	+33-1 5535 8878	gms@kotra.or.kr

KOTRA자료 20-035

2020 국별 진출전략 프랑스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1-4(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